



###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동일조건변경허락. 귀하가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했을 경우에는, 이 저작물과 동일한 이용허락조건하에서만 배포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동일조건변경허락. 귀하가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했을 경우에는, 이 저작물과 동일한 이용허락조건하에서만 배포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2010年 8月

碩士學位 論文

구약 『에스더』의 응결성과 응집성  
연구

朝鮮大學校 大學院

國語國文學科

劉 炫 君

구약 『에스더』의 응결성과 응집성  
연구

-A study on the Cohesion and the Coherence of  
*Esther* in the Old Testament

2010年 8月 25日

朝鮮大學校 大學院

國語國文學科

劉 炫 君

구약 『에스더』의 응결성과 응집성  
연구

지도교수 최 세 희

신청

이 논문을 문학 석사학위신청 논문으로 제출함

2010年 4月

朝鮮大學校 大學院

國語國文學科

劉 炫 君

劉 炫 君의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김영미 (인)

위    원      조선대학교 교수      강희숙 (인)

위    원      조선대학교 교수      최래희 (인)

2010년 5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 목 차

ABSTRACT .....	iii
제1장 서론 .....	1
1.1 연구목적 및 필요성 .....	1
1.2 선행연구 .....	2
1.3 이론적 배경 .....	4
제2장 『에스더』의 응결성 분석 .....	9
2.1 회기 .....	9
2.2 병행구문 .....	18
2.3 환언 .....	25
2.4 대응형 .....	30
2.5 생략 .....	35
2.6 접속표현 .....	38
제3장 『에스더』 응집성 분석 .....	46
3.1 거시구조와 미시구조 .....	46
3.2 선국석 패턴에서의 응집성 .....	58
제4장 결론 .....	68
참고문헌	
부록	

# 그림 목차

[그림 1] 텍스트학 대상도 (이석규 외, 2001:19) .....	7
[그림 2] 텍스트 결속구조와 결속성 관계도 (김재봉, 1999: 59) .....	7
[그림 3] 홀수 병행구조 구성도 .....	25
[그림 4] 「에스터」의 거시구조 .....	46
[그림 5] (A) 「왕이 산치를 베풀」의 기시구조 .....	47
[그림 6] (A) 「왕이 잔치를 베풀」의 미시구조 .....	48
[그림 7] (B) 「와스디의 폐위」의 거시구조 .....	48
[그림 8] (B) 「와스디의 폐위」의 미시구조 .....	49
[그림 9] (C) 「에스터의 등극」의 기시구조 .....	50
[그림 10] (C) 「에스터의 등극」의 미시구조 .....	50
[그림 11] (D) 「하만의 음모」의 거시구조 .....	51
[그림 12] (D) 「하만의 음모」의 미시구조 .....	52
[그림 13] (E) 「하만의 굴욕」의 거시구조 .....	53
[그림 14] (E) 「하만의 굴욕」의 미시구조 1 .....	53
[그림 15] (E) 「하만의 굴욕」의 미시구조 2 .....	54
[그림 16] (F) 「유대인의 승리」의 기시구조 .....	55
[그림 17] (F) 「유대인의 승리」의 미시구조 1 .....	56
[그림 18] (F) 「유대인의 승리」의 미시구조 2 .....	57



## ABSTRACT

### A study on the Cohesion and the Coherence of *Esther* in the Old Testament

Lin, Xuanjun

Advisor : Prof. Choi Jaehoo, Ph.D.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 Literature,  
Graduate School of Chosun University

The studies of Cohesion and Coherence have become a focus of many linguists in recent years.

In textual analysis, Cohesion and Coherence are of great significance in that they can help reader(s) to better understand the structure, the content and the formation of literature the flow of the text, to improve and help in better understanding the intention of the author. It is thus helpful to the analysis of literature.

This dissertation tries to analyse how to apply this theory to the story of Esther in the old testament of the Bible.

Devices that satisfy Cohesion include recurrence, partial recurrence, and junction expressions. This study also analysed what effects the devices appearing in Esther could fit for Coherence and that are categorized as following:

Coherence focusing on the plot applied to the whole text and partial coherence for Coherence of the whole text. This study found that Coherence existed in respect to a macro structure and partial Coherence to a micro structure.

This dissertation consists of four chapters.

The first chapter : introduces the object of theoretical foundation of the research.

The second chapter: introduces the functions of cohesive devices in a text). Recurrence and parallelism are the most remarkable. Recurrence suggests that

recurring vocabulary contributes to a better concentration. It is a theory that is intended for a text producer to keep his cognizant space of text accepted for long memories. Parallels connections a way that a text producer employs to replace a way of saying something by his own expression, using subordinate connections as he believes it is more appropriate.

The third chapter: introduces (story lines) by speculating their macro structures and micro structures through an analysis of coherence of Esther .

The fourth chapter: the conclusion, sums up the content of this dissertation.

# 제 1 장 서 론

## 1.1 연구목적 및 필요성

본 연구의 목적은 구약 성경 『에스더』의 텍스트 응결성과 응집성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구약 『에스더』 텍스트의 구조특성, 연결방법 및 문맥구조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구절연결의 법칙과 텍스트생산자가 이 법칙을 통하여 표현하려는 심층 함의를 찾아내려는 것이다. 먼저, 구약 성경 『에스더』를 기록한 목적과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에스더』를 기록한 목적은 전 페르시아의 수산궁에서 부림절<sup>1)</sup>의 기원을 기록하여, 하나님이 유대민족을 지키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고자 함이다. 따라서 부림절 기원의 기록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후세에 전하고 정기적으로 부림절을 지키게 하여 신앙 각성의 기회로 삼도록 권고하기 위해서였다. 비록 기도와 섭리(providence)에 대한 약간의 암시 외에는 유대인들의 종교와 관련된 하나님의 이름이나, 성전 등의 명시적인 단어가 본문에는 없지만 『에스더』가 성경에 포함된 이유는 시대와 지역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는 선민을 보호하신다는 뜻이 담겨 있다고 믿기 때문이었다.

『에스더』의 내용을 간단히 요약 하면, 아하수에로 왕 재위시에 총신(寵臣) 하만이 유대인들을 몰살하려고 하는데, 유대인인 에스더가 왕비가 되어 양부(養父)이자 사촌인 모르드개와 협력하여 하만의 음모로부터 유대인들을 구출해낸다. 그 결과, 하만은 모르드개 대신 처형되고 음모에 가담했던 자들은 유대인의 손에 죽게 된다. 유대인들은 이날의 승리를 기념하여 매년 부림절을 지키고 있다.

다음으로 성경 해석에 텍스트 언어학적 분석방법으로 분석하는 필요성에 대한 살펴보겠다.

신혜경(2006)에 의하여 성경이 처음 기록될 때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와 아람어로 기록되었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었다. 이처럼 성경의 해석에는 언어의 장벽이 있다. 또한 성경이 기록될 당시의 문화와 현대의 문화 사이에는 엄청난 장벽도 존재한다. 성경은 각 권은 시대적 상황이 다르고 오래 전승의 과정을 거쳤다. 특히 구약 성경은 오래 시간을 통해 또 여러 사람들에 의해 기록되고 형성된 텍스트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 것은 불가능한 작업은

---

1) 『그랜드 종합주석』(1996)에 따라 아하수에로(Xerxes) 왕(B.C.485-464)때, 포로로 잡혀가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대적들의 몰살 음모에서 벗어나 목숨을 건진 날을 기념하는 절기인데 유대력으로 아달월(12월) 14일과 15일이다. 이날에는 모도 유대인들이 회당에 나가서 『에스더』를 낭독한다.

아닐지라도 대단히 힘든 작업임에 틀림없다. 그러므로 성경의 해석은 특별한 해석의 분야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성경의 말씀은 구체적인 역사적 상황 속에서 전해진 말씀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시공을 초월해서 교훈을 주시는 영원한 말씀이다. 성경은 하나님이 선택한 특정 개인<sup>2)</sup>을 통해서 인간에게 하고자 한 말씀을 문자로 기록하고 그 기록된 내용을 특정 공동체나 개인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신앙적 텍스트이다. 따라서 성경은 생산자의 의도를 수용자에게 전달하고자하는 의사소통적 목적에 충실한 텍스트로 볼 수 있다.

이성연(2002: 241)은 성경을 문장을 가장 큰 단위로 설정하는 문법적인 틀 안에서 해석 하려고 하였다. 그런데 의사소통적 관점에서 본다면 성경 해석은 최초의 생산자와 최초의 수용자 사이의 의사소통 과정에 대한 연구가 된다. 따라서 텍스트 생산자의 의도를 보다 세밀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성경 해석에 텍스트 언어학적 분석방법이 필요하다.

언어의 분석은 여러 가지 각도에서 분석할 수 있는데 본고에서는 『에스더』의 응결성과 응집성에 대한 텍스트 분석에 예증과 통계, 묘사의 방법을 이용하였다. 텍스트에서 많은 대표적인 예문을 찾아내어 분류·정리하였다. 그리고 많은 예증과 분석을 통하여 그 사이의 법칙과 활용을 연구하며, 텍스트의 연결성에 대하여 비교적 전면적인 분석을 하겠다. 문장의 연결 방법과 맥락 및 문맥구조를 파악하고 분석하여, 텍스트생산자가 이를 이용하여 『에스더』에서 표현하려는 심층 함의를 찾아낸다.

## 1.2 선행연구

1960년대까지는 언어의 최대 단위는 문장이었다. 한편 이론 언어학 연구는 음소론, 형태론, 통사론, 의미론(어휘의미론, 문장의미론, 형식의미론) 등이 중심을 이루었다. 문장은 문법(통사론)의 단위이고, 텍스트는 의사소통(communication)의 단위이다.

1960년대 이후 독일과 영국을 중심으로 텍스트언어학의 연구가 시작되었는데, Hartman(1964)의 연구가 그 출발점이었다. 텍스트의 어원은 라틴어 명사 ‘textus’ (직물/조직)인데, 동사 ‘textere’(짜다)에서 파생되었다. ‘언어 단위들이 하나의 길고 짧은 글의 조직체로 연결되었’ 다는 뜻으로 ‘직물’의 의미이다.

---

2) 여기에서 개인은 특별한 개인이나 지도자, 혹은 예언자를 가리킨다.

Hartmann은 1960년대 후반에 “텍스트는 원초적 언어 기호이다” 라는 명제를 세웠는데, 언어 기호란 문장의 상위 단위를 뜻한다. Coseriu(1967)은 텍스트 형성에 있어서의 응결성 문제를 부각시켰으며, 1971년에는 언어학을 ‘구조·기능 언어학, 생성·변형언어학, 텍스트언어학’으로 나누었다(신익성, 1995: 53).

한국에서는 1990년대부터 텍스트 언어학이 들어왔다. 최초의 텍스트 언어학 이론은 『담화·텍스트 언어학입문』(김태옥·이현호 역, 1991)이다. 그리고 고영근(1991), 이현호 외(1997), 고영근 외(2001), 이석규 외(2001) 등의 연구 번역서들이 출판되었다. 성경 텍스트에 대한 언어학적 연구 성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정상문(2000)은 담화 분석의 방식으로 신약성경 마가복음에 나타난 질문의 담화 기능을 살펴보았고, 김창대(2007)은 텍스트 언어학적 구문론, 의미론, 화용론, 기능성문법, 수학적 장치 등의 토대로 구약성경 해석을 분석하고 있다. 박노철(2004)은 비유적 표현에 나타난 텍스트성 중심으로 성경번역의 역사와 한국말 성경 번역을 비교하고 있다. 동성식(1995)은 『좁은 문』과 성경의 상호텍스트성에 대한 연구를 제시하고, 양권석(1998)도 상호텍스트성 성경 읽기 방법으로 성경해석의 가능성을 보여 주었다. 그리고 이진아(2000)은 성경 창조신화와 아담의 이야기의 상호 텍스트성을 분석하였으며 이지혜(2009)는 성경의 상호텍스트성과 멜빌 소설에 대한 연구를 하였다. 이석규(1997)은 성경의 기록된 ‘선한 사마리아인’의 텍스트에 나타난 정보성을 분석하고 있다.

정역벽(1999)는 응집성과 응결성의 분석을 통해 『빌립보서』의 구조적 특성을 분석했다. 또한, 그는 예수와 사마리아 여자와의 대화의 성경 텍스트에 나타난 상황성을 분석하고 있다. 이성연(2002)은 응결성의 장치들이 『요나』에서, 안정순(2005)은 『아가』에서 응결성의 장치들이 텍스트에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가를 분석했다. 신혜경(2006)은 응결성의 장치들을 『룻』의 텍스트에서 활용되는 방법을 보여주고 있으며, 『룻』의 구조적 특성도 응집성 분석을 통하여 분석했다. 정성길(2007)은 『예리미야』에서 30~33장에 나타난 응결성에 대하여 분석했다. 이미경(2009)은 『에스더』 1~3장을 스키마적 성경의 읽기 방법으로 살펴보았다.

선행연구에서 『에스더』에 대한 텍스트 언어학적 연구 성과는 많지 않으므로, 본고에서는 성경 『에스더』를 텍스트 언어학의 연구 방법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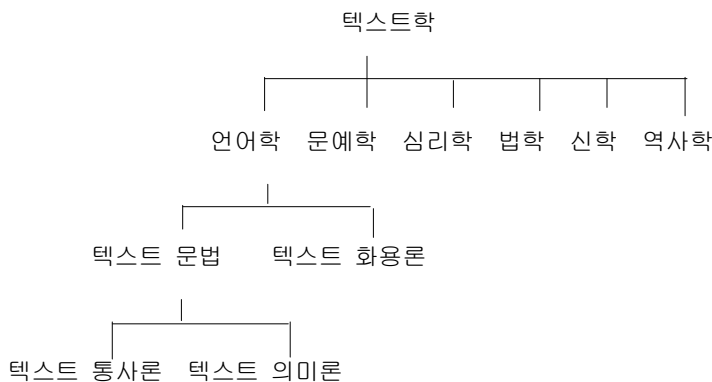
이 연구 목적을 위하여 본고의 논의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제1장은 서론이며 연구 목적 및 필요성 선행 연구가 있다. 제2장은 『에스더』에 나타난 응결성으로 텍스트 언어학과 응결성, 응결성의 장치로 구성 되었으며, 제3장은 『에스더』에 나타난 응집성에 대한 분석인데 거시구조와 미시구조, 전국적 패턴에서의 응집성으로 구성되었다. 제4장은 결론이다.

### 1.3 이론적 배경

텍스트학(Textwissenschaft)은 텍스트를 대상으로 하는 모든 학문을 가리키고, 텍스트를 유형화할 수 있는 기준 설정을 그 과제로 삼는다. 모든 학문 영역에서는 텍스트를 다양한 관점에서 다양한 목표를 설정하여 연구한다. 예를 들면 신학에서는 종교적인 텍스트(성경)의 해석을, 역사학에서는 역사적인 불변사실들을 규명하고, 텍스트 유형의 변이형들과 이들을 기초하는데 근거가 되는 사회적, 정치적, 문학적인 정황들을 연구한다. 사회 심리학은 일정한 텍스트 구조들과 이 구조들이 개인이나 그룹의 영향지식, 견해, 태도, 행위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연구한다. 텍스트 언어학은 텍스트학의 한 분야로 그 주된 과제는 Brinker(1992: 8)에 따르면 구체적인 텍스트의 바탕을 이루는 텍스트를 수용할 때 갖는 이들의 의미를 밝혀내는 일이다(이석규 외, 2001: 19).

텍스트 언어학이란 개념은 1960년대부터 유럽, 특히 독일어 사용 지역에서 정립되고<sup>3)</sup> 불어권 영역에서는 ‘텍스트과학’ (science du texte), 영어권에서는 ‘담화 분석’ (discourse analysis)이라고 부르고 있다. 이기동 외 역(1999)에서는 Dirven에 의하면 ‘텍스트 언어학이란 어떻게 S(화자, 청자)와 H(청자, 독자)가 텍스트를 이용하여 의사소통을 하는가’에 대한 연구라고 하였다. 다시 말해, S가 만들어 내거나, H에게 주어진 텍스트(문, 단어들)의 범위를 넘어서 어떻게 문장과 단락, 소절 등의 사이에 나타나는 관계를 파악하는가에 대한 연구이다.

반다이크(1980)<sup>4)</sup>은 텍스트학을 다음과 같이 나누었다.



[그림 1] 텍스트학 대상도

3) Vitacolonna(1988)에 따르면 Hartmann(1964)의 논문을 텍스트 언어학의 출발점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Hjelmslev(1943)에서는 통합적 관계들의 계층적인 연쇄 과정으로서의 텍스트 또한 언어이론의 중요한 연구대상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담론 분석의 필요성은 Harris(1964)에 의해 제기된 바 있다는 것은 권재일(1998: 468)에서 재인용을 하였음.

4) 반다이크(1980)에 나타나는 텍스트학 대상도는 이석규 외.(2001: 19)에서 재인용을 하였다.

텍스트 구성은 주로 텍스트 통사론의 과제이다. 여기에서는 텍스트에서 언어적 요소들을 접속시키는데 사용되는 수단들을 문제 삼는다. 이에 반해, 텍스트 의미론은 이미 실현된 텍스트에 나타난 의미론적 관계를 다룰 뿐만 아니라 요인들과도 의존관계에 있는 텍스트 이해의 문제를 취급하기도 한다(이석규 외, 2001:19).

Beaugrande & Dressler(1994)<sup>5)</sup>에 의하면, 텍스트 언어학의 주요 분석 장치는 텍스트성의 일곱 가지 기준(standard)이다. 이들은 인간의 의사소통 행위 속에서 실현되는 텍스트성의 여러 국면을 ‘언어, 인간정신, 외적 현실, 의사소통적 요소’ 등으로 구분하였다. 이는 다음 <표 1>과 같다.

<표 1>텍스트성의 기준

	언어	정신	현실	의사소통
텍스트 구성 요인	텍스트적 요인	심리적 요인	사회적 요인	정보처리적 요인
텍스트성의 기준	응결성 응집성	의도성 용인성	상황성 상호텍스트성	정보성

<표 1>에 따라서 첫째, ‘응결성’ (cohesion)과 ‘응집성’ (coherence)은 텍스트 구성의 언어적 요인에 해당한다. 둘째, ‘의도성’ (intentionality)과 ‘용인성’ (acceptability)은 텍스트 구성의 인간 정신의 심리적 요인에 해당한다. 셋째, ‘상황성’ (situationality)과 ‘상호텍스트성’ (intertextuality)은 텍스트 구성의 현실 세계의 사회적 요인에 해당한다. 넷째, ‘정보성’ (informativity)은 텍스트 구성의 커뮤니케이션의 정보처리적 요인에 해당한다.

본고에서는 텍스트 언어학 이론에서의 텍스트성의 7가지 기준 중의 응결성과 응집성을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텍스트를 이루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언어표현의 선택과 배열의 문제인 응결성과 ‘텍스트 의의의 연속성(continuity of senses)’ 을 뜻하는 것이 응집성이다. 이는 다른 텍스트성과 구별되는 것이다. 따라서 응결성은 텍스트표층의 문법적인 연관성을 가리키며, 응집성은 텍스트의 심층적, 내용적, 의미적 연관성을 가리키게 된다. 다음으로 응결성과 응집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

먼저, 응결성(cohesion)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 응결성은 일곱 가지 텍스트성 가운데의 하나이므로 텍스트를 이루는 표층 요소 즉, 언어 표현 사이의 관련성을 의미한다. 하나의 텍스트를 이루고 있는 언어 표현들은 서로 관련되어 있으며 그 관련성은 다양한 층위에서 확인될 수 있다. 응결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

5) Beaugrande, R. de & Dressler. W(1994)에서 구분하는 텍스트성의 일곱 가지 기준은 장영표(1998: 5)에서 재인용을 하였다.

한 층위의 장치들이 있다. 즉, 표층 텍스트에 나타는 발화체들이 구조적으로 연속성을 갖는 데 기여하는 모든 문법적, 의사소통적 도구 및 패턴을 ‘응결성 장치(cohesive device)’ 라고 한다. 이들 중에는 ‘회기(recurrence), 부분회기(partial recurrence), 병행구문(parallelism), 환언(paraphrase), 대용형(pro-form), 생략(ellipsis), 접속표현(junction), 시제(tense), 상(aspect)’ 등이 있다. 이러한 장치들 중 ‘회기, 부분회기, 병행구문, 환언, 대용형’ 등은 언어표현의 연쇄들이 등가적 관계(equivalent relation)를 가지는데, ‘등가성(equivalency)’ 라고도 한다.

응결성이 텍스트를 형성하는 의미적·인지적(함축적) 기제라면, 응결성은 텍스트를 형성하는 형태론적·통사론적(명시적인) 기제이다. 따라서 응결성은 일정한 문법적 수단들을 통해서 텍스트의 표층 요소들이 하나의 연쇄 속에서 서로 관련됨을 의미하는 것으로 문법적인 의존 관계를 바탕으로 한다.

텍스트에서 문장과 문장이 연결될 때는 접속형식, 대용형, 어휘 반복과 생략 등의 다양한 통사론적 장치들이 응결성의 장치(표지)<sup>6)</sup>로써 응결(결속)을 위해 사용된다(안정순, 2004: 11). 이러한 응결성의 장치를 사용할 때는 의사소통 행위에서 표층 통사적 기능을 강조한다. 그리고 이는 텍스트 수용자가 어떤 인지적 효과나 맥락의 효과를 얻는 데 기여하게 된다.

다음으로 응집성(Coherence)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응집성은 텍스트 전체에 관련되는 주제 구조를 중심으로 한 전체응집성이 있을 수 있고, 전체 텍스트의 응집성을 이루기 위한 부분 응집성이 있을 수 있다. 전체 응집성은 거시 구조라 할 수 있고, 부분 응집성은 미시 구조라 할 수 있다. 그리고 텍스트 생산자가 표현하고자 하는 주제가 어떤 방식으로 구조화되는지에 초점을 맞추면 ‘주제 구조 연구’라 하고, 한 편의 텍스트가 어떻게 응집성을 이루는가에 초점을 맞추면 그것은 ‘거시 구조 연구’라 한다. 그 응집성이 주제를 중심으로 이뤄진다고 볼 때는 결국 주제 구조와 거시 구조는 동일한 개념이 된다. 거시 구조라 함은 문장의 연속 속에서 각 명제 상호간의 선적인 내용상의 연관성을 말하는데 내용상의 심층 구조라고 할 수 있다. 의미론적 거시 구조 분석은 텍스트 내의 단어, 문장, 문장 연결에 대한 미시적인 수준의 분석보다 좀 더 전체적인 측면에서 이루어진다(송태윤, 2005: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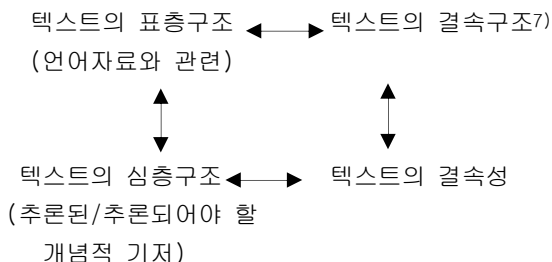
응집성에서 하나의 텍스트가 ‘의미 있다’라는 것은 그 텍스트의 표현들로 활성화된 지식간의 ‘의의의 연속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의의 연속성은 응집성의 기반으로 규정할 수 있는데, 응집성은 여러 개념과 그들 관계가 이루는 한 구성체 내부에서 갖는 상호적 접근과 적합성이다. 다시 말해서 응집성은 텍스

6) 회기, 부분적 회기, 대용, 생략, 환언, 병행구문, 접속표현 등.



트 기저에 있는 각 개념과 그들 관계의 구성체의 성분들이 상호수용 가능하고 적합성을 띄는 방식에 관여한다.

응결성과 응집성은 텍스트의 연결관계를 나타내는데 응결성은 표층구조의 연결성을, 응집성은 텍스트 기저 개념들의 연결성에 관여한다. 김재봉(1999: 58-59)에 의하여 응결성과 응집성의 관계를 살펴보면 [그림 2]와 같다.



[그림 2] 텍스트 결속구조와 결속성 관계도

이 그림에서 쌍화살표는 관계의 상호작용을 의미한다. 결속구조는 표층적 현상이고, 결속성은 심층적인 현상이다. 이들은 텍스트의 구체적인 실현수단으로서 상보적인 관계를 형성한다.

본고 『에스더』에 대한 분석은 먼저 응결성 장치로 텍스트 언어학 이론 중 회기, 병행구문, 환언, 대용형, 생략, 접속표현 여섯 개의 응결성 장치에 근거하여 계통적이고 전면적인 분석을 진행한다.

다음으로 응집성 분석에서는, 스키마(schemas)<sup>8)</sup>에 근거하여 『에스더』를 여섯 개 주제로 분류하였다. 사건에 참여한 행위주체와 움직임을 거시 구조로 분석하고 움직임이 나타난 각종 사건요소에 근거하여 그 거시 구조를 이루는 미시 구조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본고에서는 우선 그림을 그린 후 다시 해석이나 묘사하는 방법을 이용하였다. 그리고 본고도 전국적 패턴의 스키마에 의하여 텍스트 구조 속에 시간적 인접성과 인과관계로 연결된 사상과 상태들의 가진 응집성을 분석하겠다.

본고를 정확한 이해를 추구하기 위해서 텍스트 언어학적인 접근 방법은 텍스트 수용자들이 『에스더』에 담겨 있는 정보를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수용하는 데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이다.

7) 한국 일부 학자들은 응결성은 결속구조로, 응집성은 결속성이란 용어로 사용한다.

8) 스키마(Schemas)는 시간적 인접성과 인과관계로 연결된 사상(事象)과 상태들이 일정한 순서로 배열된 전국적 패턴이다(이석규 외, 2001: 45).

『에스더』의 하위 텍스트 구성단위는 다음과 같이 나누기로 한다. 구약 성경 『에스더』는 한국어 개역 성경(1987, 대한성서공회)을 택했다.

(1).

- a. [T1]왕이 잔치를 베풀(1:1-1:8)
  - [T1-1]당시의 배경과 장소(1:1-1:2)
  - [T1-2]아하수에로 왕의 연회(1:3-1:8)
- b. [T2]와스디의 폐위(1:9-1:22)
  - [T2-1]왕의 연회 참석 요구에 대한 왕후 와스디의 연회참석 거절함(1:9-1:12)
  - [T2-2]왕후 와스디의 폐위조서를 내림(1:13-1:22)
- c. [T3]에스더의 등극(2:1-20)
  - [T3-1]신 왕후의 간택 조서 반포(2:1-2:4)
  - [T3-2]에스더의 족보(2:5-2:7)
  - [T3-3]에스더가 왕후 피택(2:8-2:18)
- d. [T4]하만의 음모(2:19-4:17)
  - [T4-1] 모르드개가 왕에 대한 하만의 모살 음모를 폭로함(2:19-2:23)
  - [T4-2]모르드개와 하만의 대결(3:1-3:6)
  - [T4-3]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유대인 진멸 조서를 반포함(3:7-3:15)
  - [T4-4]진멸 조서로 인하여 유대인이 통곡하며 금식함(4:1-4:3)
  - [T4-5]에스더가 유대인에 대한 구원에 대한 결심함(4:4-4:17)
- e. [T5]하만의 굴욕(5:1-8:2)
  - [T5-1]에스더가 왕을 알현함과 연회를 요청함(5:1-5:8)
  - [T5-2]하만의 왕후의 연회 수락과 모르드개의 처형을 위한 음모계획(5:9-5:14)
  - [T5-3]왕의 불면증을 통해서 모르드개의 공적에 관한 기록을 발견함(6:1-5:3)
  - [T5-4]하만의 진언(6:4-6:9)
  - [T5-5]모르드개는 존귀하게 되고 하만은 수치를 당함(6:10-6:14)
  - [T5-6]에스더가 왕에게 하만의 유대인 멸절음모를 폭로함(7:1-7:7)
  - [T5-7]하만이 처형받게 됨(7:8-7:10)
  - [T5-8]왕이 모르드개에게 은상을 수여함(8:1-8:2)
- f. [T6]유대인의 승리(8:3-10:3)
  - [T6-1]유대인의 구원조서 반포(8:3-8:14)
  - [T6-2]모르드개가 백성의 환호를 받음(8:15-8:17)
  - [T6-3]유대 대적들의 공포와 멸망(9:1-9:16)
  - [T6-4]부림절의 반포(9:17-9:32)
  - [T6-5]모르드개가 왕의 다음이 되어 존경 받음(10:1-10:3)

다음 제2장과 제3장에서 구약 『에스더』의 응결성과 응집성에 대한 분석하겠다.

## 제2장 『에스더』의 응결성 분석

본 장에서는 『에스더』에 나타나는 응결성 장치의 회기, 환언, 병행구문, 대용형, 생략, 접속표현 등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 2.1 회기(Recurrence)

회기(recurrence)는 언어 요소들의 직접적인 반복을 말한다. 즉 같은 텍스트 안에서 먼저 사용된 언어 표현을 다시 사용하는 기법이다. 회기는 텍스트의 응결성 조직 요인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다. 이것은 개념을 구성하는 성분들이 텍스트의 응집성을 달성하기 위해서 반복되어 나타나는 것이다(Van Dijk, 1972: 313).

이성연(2002: 243)에서는 이러한 회기 구조 형태는 전달하고자 하는 중심 의미를 강조 혹은 재확인하기 위해 다시 언급하는 방법이지만 빈도수가 많으면 정보성이 저하된다고 하였다. 왜냐하면 새로운 정보 제시를 기대하는 텍스트 수용자에게 앞서 처리했던 발화체가 다시 제시되어 흥미를 반감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회기법은 다음과 같은 필요에 의해 사용된다고 이석규 외(2001: 28)에서는 정리하였다.

(2).

- 가. 즉발적으로 하는 말 가운데서 흔히 일어나는데, 말을 계획하는 시간이 짧고, 표층 텍스트가 순식간에 사라져 재 언급이 필요할 때 일어난다.
- 나. 두드러지게 자기의 견해를 주장하고 재확인하거나, 자기 견해와 모순되는 발화체에 대한 놀라움을 표시하기 위해서 사용된다.
- 다. 어떤 내용을 부인하는 것으로 사용된다.
- 라. 화제와 무관한 방해를 받을 때 이를 극복하고 자기의 이야기를 계속하려는 욕구로 사용된다.

이제는 『에스더』에 두드러지게 사용된 회기 기법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3)[T1-1]위에 있는 지 삼 년에 그 모든 방백과 신복을 위하여 ①a. 잔치를 베풀 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 와 각 도의 귀족과 방백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1:3) 왕후 와스디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부녀들을 위하여 ②a. 잔치를 베풀 푸니라(1:9).

(4)[T3-3]왕이 크게 ③a. 잔치를 베풀 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방백

과 신복을 향응하고 또 각 도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풍부함을 따라 크게 상주니라(2:18).

(5) [T5-1] 에스더가 가로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④a. 잔치를 베풀었**사오니 왕이 선히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임하소서(5:8).

(6) [T6-4] 아달월 십삼일에 그 일을 행하였고 십사일에 쉬며 그 날에 **⑤a. 잔치를 베풀어** 즐겼고(9:17) 수산에 거한 유대인은 십삼일과 십사일에 모였고 십오일에 쉬며 이 날에 **⑤b. 잔치를 베풀어** 즐긴지라(9:18) 그러므로 촌촌의 유대인 곧 성이 없는 고을고을에 거하는 자들이 아달월 십사일로 경절을 삼아 **⑤c. 잔치를 베풀고** 기며 서로 예물을 주더라(9:19) 이 달 이 날에 유대인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⑤d. 잔치를 베풀고** 즐 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9:22).

위의 ①a에서 아하수에로 왕은 자기의 엄청난 부와 권력을 귀족과 방백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성대한 잔치를 베풀었고, ②a왕후 와스디는 잔치에서 왕의 무례한 명령을 거부하여서 폐위를 초래하였다. 그리고 에스더가 ③a새 왕후로 간택 되어 잔치를 베푸는 것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온 백성이 기뻐할 이유가 되었다. ④a 왕후 에스더가 잔치를 베풀으로써 지혜로운 유대민족의 대적이 되는 하만의 음모를 전복하였고 유대민족을 구하게 되었다. ⑤a-d부분은 역사적 기쁨이 된 유대민족의 큰 기쁨의 잔치이다. ⑤a는 유대인의 승리는 ‘잔치를 베풀’ 이기 때문에 ⑤b~d는 텍스트 수용자에게 인지 가능한 구정보가 되었다. 따라서 ⑤b~d는 ⑤a와 같은 대상을 가리키기 때문에 텍스트의 간결성과 경제성을 저하시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표현을 생략하지 않고 회기기법을 택하는 이유는 유대인이 구원받고 대적들이 진멸된 기쁨을 강조·재확인하기 위함이다.

위에서는 텍스트의 앞 부분에서 왕이 자신의 부를 자랑하기 위하여 ①a베풀 잔치와 텍스트의 중간부분에서 에스더가 유대민족을 구하기 위하여 ④a베풀 잔치, 그리고 텍스트의 끝부분에서 유대민족이 승리를 위하여 ⑤a-d베풀 잔치를 포함한 세 번의 잔치를 회기 하였다. 이런 회기를 통하여 ‘왕의 잔치’ 는 와스디를 폐위한 원인과 에스더의 등장이 이루어졌다. 또한 ‘에스더가 베풀 잔치’ 를 통하여 유대민족이 구원을 받고 승리의 잔치를 열 것임을 암시하였다. ‘잔치를 베풀’ 라는 것은 텍스트 속에서 무형의 연결선처럼 텍스트 전체를 효과적으로 연결하고 있다.

(3)-(6)에서는 구성 명사 ‘잔치’ 를 발 회 반복하고 무형의 단서인 세 번의 잔치를 회기의 기법으로 보여 주었다. 이처럼 회기는 텍스트의 ‘발단·전개·대단원’ 의세 부분이 ‘시작-급전환-승리’ 의 정보를 획득하게 한다. ‘잔치’ 는 반복을 통하여 구정보가 되었고 정보성이 저하되었지만 텍스트의 안정성을 강하게 유지시켰다. 따라서 텍스트 수용자에게 재확인·강조의 느낌을 준다. 다음 (7)-(8)에서는

‘부르 곧 제비를 뽑아’가 회기 기법의 대상이 되었다.

- (7)[T4-3]아하수에로 왕 십이년 정월 곧 니산월에 우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①a.부르 곧 제비를 뽑아 십이월 곧 아달월을 얻은지라(3:7).
- (8)[T6-4]곧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②a.부르 곧 제비를 뽑아 저희를 죽이고 멸하려 하였으나(9:24).

위에서는 ①a와 ②a에 ‘부르 곧 제비를 뽑다’를 두 번 회기 하였다. ①a에서는 하만이 유대백성을 진멸하기 위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았다’. ②a에서의 ‘부르 곧 제비를 뽑았다’는 모르드개의 편지 내용을 설명하기 위한 서두어으로써 부림절의 유래를 부연하고 있다. 이런 회기를 통하여 같은 행사가 텍스트 속에서 대비되는 효과와 전후조응 되는 효과가 나타나도록, 그러나 더욱 강한 안정성을 유지하였다. 그리고 ‘부르’ - ‘제비를 뽑아’는 동일대상을 가리킴으로써 환언기법으로 해석도 될 수 있다. 다음 (9)-(11)에서는 ‘소서’가 회기 기법의 대상이 되었다.

- (9)[T2-2]왕이 만일 선히 여기실진대 와스디로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를 중에 기록하여 번역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위를 저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1:19) 왕의 ①a.조서가 광대한 전국에 반포 되면 귀천을 무론하고 모든부녀가 그 남편을 존경하리이다(1:20)각 도 각 백성의 문자와 방언대로 모든 도에 ①b.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남편으로 그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방언대로 말하게 하라 하였더라(1:22).
- (10)[T4-3]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②a.조서를 내려 저희를 진멸하소서 내가 은일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부쳐 왕의 부고에 드리리이다(3:9) 정월 십삼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 도 방백과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②b.조서를 쓰되 곧 각 도의 문자와 각 민족의 방언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치니라(3:12) 이에 그 ②c.조서를 역졸에게 어린아이나 부녀를 무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하였고(3:13) 이 명령을 각 도에 전하기 위하여 ②d.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 날을 위하여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3:15).
- (11)[T6-1]가로되 왕이 만일 즐겨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선히 여기시며 나를 기쁘게 보실진대 ④a.조서를 내리사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이 왕의 각도에 있는 유다인을 멸하려고 꾀하고 쓴 ④b.조서를 취소하소서(8:5)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④c.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③a. **조서**는 누구든지 취소 할 수 없음이니라(8:8) 그때 시완 월 곧 삼월 이 십삼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고 무릇 모르드개의 시키는 대로 ④d. **조서를** 써서 인도로부터 구스까지의 일백이십칠 도 유다인과 대신과 방백과 관원에게 전 할 새 각 도의 문자와 각 민족의 방언과 유다인의 문자와 방언대로 쓰되(8:9) 아하수에로 왕의 명의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치고 그 ④e. **조서를** 역졸들에게 부쳐 전하게 하니 저희는 왕궁에서 길러서 왕의 일에 쓰는 준마를 타는 자들 이라(8:10) ③b.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대인에게 허락하여 저희로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도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저희를 치려하는 자와 그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8:11) 왕의 명이 심히 급하매 역졸이 왕의 일에 쓰는 준마를 타고 빨리 나가고 그 ③c. **조서**가 도성수산에도 반포되니라(8:14).

(9)에서는 ‘조서’가 회기 되었다. ①a ‘조서’가 이미 전술이 언급되기 때문에 ①b는 텍스트 수용자에게 인지 가능한 구정보가 되었다. 이때 ①b는 텍스트의 경제성을 위하여 ‘조서’를 생략할 수도 있었다. 그런데 이것을 생략하지 않고 회기를 택한 이유는 텍스트 생산자가 ‘조서’를 강조함으로써 아하수에로 왕이 자신의 일시적인 감정과 신하들의 그릇된 조언으로 인해 왕후 와스디에 대한 폐위조서를 내려 폐위를 시키는 확실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10)에서는 왕이 하만의 의견을 수렴하여 유대민족의 진멸을 위한 조서를 내리는 장면이다. ②의 목적어 명사구 ‘조서를’은 세 회 반복된다. ②a의 ‘조서를’이 이미 언급되었기 때문에 ①b~c까지는 텍스트 수용자에게 인지 가능한 구정보가 되었다. 이로 인해 경제성, 정보성이 떨어진다. 하지만 ‘조서를’의 회기는 텍스트 생산자가 왕이 유대인들을 진멸한 명령을 바꿀 수 없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한 의도로 사용되었다.

(11)에서의 ‘조서’가 왕이 유대민족의 대적들을 진멸시키는 조서이다. ③의 주어 명사구 ‘조서’는 두 회, ④의 목적어 명사구 ‘조서를’은 오 회 반복되었다. 여기에서는 반복어휘들의 출현 빈도가 지나치게 높아서 간결성과 정보성을 저하시키고 흥미를 반감시키기 때문에 적절한 생략이 효과적이다. 그러나 생략하지 않고 회기를 택한 이유는 텍스트 전달자가 유대인이 구원받는 ‘조서’를 텍스트 수용자의 머릿속에 주입시키고자 하려는 데 있다.

이상의 ‘조서’들을 통하여 (9)①의 와스디의 폐위 ‘조서’, (10)②의 하만의 유대민족을 진멸하려는 ‘조서’와 (11)③,④의 ‘유대민족을 해방하고 하만을 죽도록 명한 조서’는 텍스트 전후에서 완전히 다른 대비효과를 나타낸다. 다음 (12)에서는 ‘처녀’, ‘왕’이 회기 기법의 대상이 되었다.

(12)[T2-9]③a. 왕의 조명이 반포되매 ①a. 처녀들이 도성 수산에 많이 모여  
 해개의 수하에 나아갈때에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 가서 궁녀를 주관  
 하는 해개의 수 하에 속하니(2:8) 해개이가 ②a. 처녀를 기뻐하여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케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에서 의례히 주  
 는 일곱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  
 더라(2:9) ①b. 처녀(가)마다 차례대로 ③b. 아하수에로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열두 달 동안을 행하되 여섯 달은 몰  
 약 기름을 쓰고 여섯 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케 하는 기한을 마치며(2:12) ①c. 처녀가 ③c. 왕에게 나아갈때에는  
 그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으로 가지고 가게하고(2:13) ③d.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욱 사랑하므로 저가 모든 ②b. 처녀보다 ③e.  
 왕의 앞에 더욱 은총을 얻은지에...(2:17).

(12)의 예문에서 ‘처녀’ 라는 어사가 ①의 주어 명사구 ‘처녀(들)가/이’ 세 회,  
 ②의 목적어 명사구 ‘처녀(들)를/을’ 두 회 반복된다. 주어진 정보인 전술언급  
 ①a, ②a 때문에 이미 ①b, ①c, ②b, ②c는 텍스트 수용자에게 구성 가능한 정보  
 가 되었다. 따라서 ①b, ①c는 텍스트의 간결성과 경제성을 위하여 대용형 ‘그들  
 이’ 로 바꾸어 표현해도 된다. ②b는 대용형 ‘그들을’ 로 바꾸어 표현해도 된다.  
 그러나 대용형 대신 회기기법을 택한 이유는 두 가지 있는데 하나는 텍스트 생산  
 자가 아하수에로 왕이 처녀들을 왕궁으로 불러들였던 이유가, 단지 왕비 간택의  
 이유만이 아니라 왕의 정욕을 채워 줄 심산에서였음을 간접적으로 수용자에게 강  
 조하기 위해서이다. 또, 하나는 페르시아 왕실 전통에 따르면 왕비는 귀족 가문에  
 서 간택해야 하지만(그랜드 종합주석, 1996: 1049) 아하수에로 왕은 법을 무시하  
 고 신분과 상관없이 전국에서 선발된 처녀들을 수산궁으로 불러 들였다. 그리고  
 그 중에서 한 명을 택하여 왕후로 맞을 계획이었다. 그때 ‘처녀’ 의 회기를 통해  
 신분상 왕후의 자격이 없던 에스더가 간택되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구속  
 사의 섭리’ 에 의한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 (12)의 ③에서 ‘아하수에로 왕’ 과  
 ‘왕’ 은 같은 인물에 대한 지칭어인데, 모두 다섯 번 반복 되었다. 이미 언급된  
 ③a로 인하여 나머지 ③b-e는 인지 가능한 구정보가 되었기 때문에 대용형 ‘그’  
 로 대용하여 텍스트 간결성과 언어의 경제성을 높였다. ③은 대용법을 택하지 않  
 고 회기법을 택하는 이유는 『에스더』 에서 나타난 역사적 인물의 사실에 대한 기  
 술이란 점도 있지만, 텍스트 생산자가 당시 강대국 ‘페르시아 왕’ 을 드러내어 그  
 의 통치를 부각시키고자 함에 있다. 또, 왕의 통치를 통해서 세계의 역사는 그것  
 을 주관하사는 ‘참왕’ 되신 하나님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파력하고 있다.  
 다음 (13)-(18)에서는 ‘존귀’ 가 회기 기법의 대상이 되었다.

- (13) [T5-3] 왕이 가로되 이 일을 인하여 무슨 ①a.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개에게 베풀었느냐 시신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6:3).
- (14) [T5-4]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②a. 왕이 존귀케 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②b. 존귀케 하기를 기뻐하시는 자는 나외에 누구리오 하고(6:6)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②c. 존귀케 하시려면(6:7) 왕의 입으시는 왕복과 왕의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취하고(6:8) 그 왕복과 말을 왕의 방백 중 가장 ①b. 존귀한 자의 손에 붙여서 ②d. 왕이 존귀케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②e. 왕이 존귀케 하기를 기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6:9).
- (15) [T5-5] 하만이 왕복과 말을 취하여 모르드개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②f. 존귀케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니라(6:11).
- (16) [T6-1]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③b. 존귀함이 있는지라(8:16)
- (17) [T6-3] 모르드개가 왕궁에서 ①c. 존귀하여 점점 창대하매 이 사람 모르드개의 명성 이 각 도에 퍼지더라(9:4).
- (28) [T6-5] 왕의 능력의 모든 행적과 모르드개를 높여 ②g. 존귀케 한 사적이 메대와 바사 열 왕의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10:2).

(13)-(18)에서는 ‘존귀하게’를 회기기법을 통해서 열한 번 반복 한다. 그중에 ①의 관형어 명사구 ‘존귀(한)’ 세 번 ②의 부사어 명사구 ‘존귀케’ 일곱 회 반복되었다. 이를 통해 여기서 주어진 정보인 모르드개가 자유가 없는 유대 포로<sup>1)</sup>가 왕 앞에 존귀한 자가 되는 것 즉, 지위가 더욱 높아짐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아하수어로 왕이 모르드개를 철저히 신임하여 그에게 많은 권한을 부여하였던 것과 권력을 잃은 하만의 상황이 강한 대비를 이룬다. 또한 텍스트수용자에게 모르드개에 대한 ‘존귀함’을 강조시키기 위해서 회기기법을 사용하였다. 이는 텍스트 수용자에게 오래 되는 기억을 형성 시킨다.

(14)의 ②a, ②d, ②e ‘왕이 존귀케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사람’의 세 회의 회기는 하만이 바라는 영광이지만 결국은 모르드개에게 돌아갈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14)-(15)에서는 ①의 부사어명사구 ‘존귀케’ 일곱 회 반복한다. 이러한 회기법의 사용은 강조하려는 내용을 텍스트 수용자의 인지 공간에 활성화 시키는 효과

1) 『그랜드 종합주석』(1996)에서 구속사적 개관: 본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 귀환이 한창 이루어지던 시기,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제 1차 포로 귀환(B. C.537년)과 제 2차 포로 귀환(년)사이, 바사 왕 아하수어로(Xerxes, B.C.485-464년)의 통치 당시의 수산궁을 배경으로 유대인 구원이라는 극적인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 따라서 본서는 제 1차 포로 귀환 사건이 기록된 스: 1-6장과 제 2차 포로 귀환 사건이 기록된 스: 7-10장 사이에 위치한 사건의 기록이라 볼 수 있다.



가 있게 해준다. (14)-(15)에서 ②a~f는 ‘왕이 존귀케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사람에게’, ‘존귀케 하는 대상’ 즉, ‘모르드개’를 부각시켜 의미를 강조함으로써 모르드개가 왕 앞에서 얼마나 영광받는 존재인가를 드러내려는 의도에서 반복하였다. 그러나 텍스트 수용자에게는 호흡이 긴 발화의 회기 때문에 오히려 생산자가 강조하려고 하는 ‘존귀’의 ‘높임’이 반감된 채 전달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번 반복한 점으로 미루어 보건대, 이 말이 단순한 공훈자에 대한 찬사가 아니라 ‘특정 공훈자’를 일컫는 말임을 알 수 있다. 다음 (19)-(21)에서는 ‘왕의 앞’이 회기 기법의 대상이 되었다.

- (19)[T5-8]당일에 아하수어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개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고한 고로 모르드개가 ①a.왕의 앞에 나아오니(8:1).
- (20)[T6-1]에스더가 다시 ①b.왕의 앞에서 말씀하며 왕의 발 아래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하니(8:3) 왕이 에스더를 향하여 금흠을 내어미는지라 에스더가 일어나 ①c.왕의 앞에 서서(8:4).
- (21)[T6-2]모르드개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면류관을 쓰고 자색 가는 베겔 옷을 입고 ①d.왕의 앞에서 나오니 수산 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8:15).

(19)-(21)에서 ‘왕+의+앞’은 ‘명사+속격조사+방위조사’의 구성으로 명사화 효과를 얻고 있다. ①a에서 ‘왕의 앞에’가 이미 언급되었기 때문에 ①b와 ①c의 장소 부사어 명사 ‘왕의 앞에’도 생략이 가능하지만 텍스트 생산자가 회기기법을 택한 이유는 ‘왕의 앞에’는 모르드개가 높아지고 에스더가 은총 받는 장소 즉, 유대인들이 에스더를 통해 구원을 받는 장소를 강조하려는 데 있다. 다시 말해서 ‘왕의 앞에’는 ‘구원이 시작되는 공간’을 강조한 것으로 생각된다. 모르드개가 ①a에서 ‘왕의 앞에’ 등장하는 것과 ①d에서 ‘왕의 앞에’서 존귀하게 되는 것은 시간상에서나 상황적 맥락상 서로 연결되어 있다. 결국, ‘왕의 앞에’라는 장소어사의 회기를 통해 텍스트 속에서 맥락적 효과가 나타나고 안정성도 유지되는 것이다. 다음 (22)-(27)에서는 ‘대궐문’이 회기 기법의 대상이 되었다.

- (22)[T4-1]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에는 모르드개가 ①a.대궐 문에 앉았더라(2:19) 모르드개가 ①b.대궐 문에 앉았을 때에 문 지키 왕의 내시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아하수어로 왕을 원한하여 모살하려 하거늘(2:21).
- (23)[T4-2]①c.대궐 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복이 다 왕의 명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개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3:2) ①d.대궐 문에 있는 왕의 신복이 모르드개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

령을 거역하느냐 하고(3:3).

- (24)[T4-4]①e.대궐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를 입은 자는 ①f.대궐 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4:2).
- (25)[T4-5]하닥이 ①g.대궐 문 앞 성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개에게 이르니(4:6).
- (26)[T5-2]이 날에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모르드개가 ①h.대궐 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심히 노하나(5:9)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개가 ①i.대궐 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 하지 아니하도다(5:13).
- (27)[T5-5]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네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취하여 ①j.대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개에게 행하되 무릇 네가 말한 것에서 조금 도 빠짐이 없이하라(6:10) 모르드개는 다시 ①k.대궐 문으로 돌아오고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 와서(6:12).

(22)-(27)의 ①a-k는 ‘대궐 문’ 을 회기기법을 통하여 열한 번 반복하는 대신에 대용형 ‘거기’ 나 ‘그 곳’ 으로 환치했다면 텍스트 응결성의 기능을 더 높였을 것이다. 그럼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모르드개가 에스더를 주목하였던 ‘장소’ 를 회기함으로써 텍스트 수용자에게 ‘대궐문’ 의 중요성을 강조시키기 위한 것이다. 다음 (28)-(31)에서는 ‘나무’ 가 회기 기법의 대상이 되었다.

- (28)[T5-2]그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가 이르되 오십 규빗이나 높은 ①a.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개를 그 ①b.나무에 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잔치에 나아가소서 하만이 그 말을 선히 여기고 명하여 ①c.나무를 세우니라(5:14).
- (29)[T5-2]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개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고가 오십 규빗 되는 ②a.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②b.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가로되 하만을 그②c.나무에 달라 하매(7:9) 모르드개를 달고자 한 ②d.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7:10).
- (30)[T6-1]아하수어로 왕이 왕후 에스더와 유대인 모르드개에게 이르되 하만이 유대인을 살해하려 하므로 ②e.나무에 달렸고 내가 그 집으로 에스더에게 주었으니(8:7).
- (31)[T6-4]에스더가 왕의 앞에 나아감을 인하여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대인을 해하려던 악한 꾀를 그 머리에 돌려 보내어 하만과 그 여러 아들 을 ②f.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9:25).

(28)-(31)에서는 죽음의 장소인 ‘나무’ 가 회기 된다. 여기서 (28)모르드개를 죽이려던 ①a-c나무(유대민족의 고난)를 의미하고, (30)-(31)은 ②a-f하만이 죽은 나무(유대민족의 승리)를 의미한다. 모르드개를 죽이기 위해서 준비했던 나무가

오히려 자신의 죽음을 위한 것이 되는 것에 대한 ‘나무’ 를 회기하고 있다. 텍스트 생산자는 ‘나무’ 의 참된 의도(유대인을 구원 받는)를 부각하기 위해 ‘나무’ 라는 어사를 회기 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같은 ‘나무’ 지만 완전히 다른 결과를 초래하였다. 따라서 (28)-(31)에서 회기를 택한 이유는 상황 묘사의 구체화를 통한 표현의 극적인 효과를 위함일 것이고, 텍스트 수용자로 하여금 사건의 주도가 하나님이라는 암시를 받게 하기 위함이다. 다음 (32)-(33)에서는 ‘인도로 구스까지’ 가 회기 기법의 대상이 되었다.

- (32)[T1-1]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된 것이니 아하수에로는 **a.인도로 구스까지** 일백이십칠도를 치리하는 왕이라(1:1).
- (33)[T6-1]그때 시완월 곧 삼월 이십삼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고 무릇 모르드개의 시키는 대로 조서를 써서 **b.인도로부터 구스까지** 일백이십칠도 유대인과 대신과 방백과 관원에게 전 할새 각 도의 문자와 각 민족의 방언과 유대인의 문자와 방언대로 쓰되(8:9).

(32)-(33)에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라는 장소를 회기법을 통해서 두 회 반복하였다. (33)의 b는 ‘거기’ 로 대치하여도 된다. 그러나 대용형 ‘거기’ 를 사용하지 않은 것은 그 나라의 크기와 강한 것을 더욱 강화하고 구체화 시키는 효과를 얻기 위함이다. 다음 (36)-(38)의 a-d에서는 ‘금식하다’ 가 회기 기법의 대상이 되었다.

- (34)[T4-4]왕의 조명이 각 도에 이르매 유대인이 크게 애통하여 **a.금식하며** 곡읍하며 부르짖고 굶은 배를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4:3).
- (35)[T4-5]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대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b.금식 하되** 밤낮 삼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c.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4:16).
- (36)[T6-4]정한 기한에 이 부림일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유대인 모르드개와 왕후 에스더의 명한바와 유대인이 **d.금식하며** 부르짖은 것을 인하여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가 있음이더라(9:31).

위의 (34)-(36)에서는 ‘금식하다’ 가 회기되었다. 이는 『에스더』의 주요내용이 유대민족이 멸살의 재난 가운데 금식 기도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바,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역사적인 이야기 형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이처럼 ‘금식으로 기도<sup>2)</sup>하여 구원을 받았음을 재 언급함으로써 하나님께서 회개를 향하는 자기

2) 『그랜드 종합 주석』(1996)에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금식’은 최악의 상태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감구하기 위한 방법으로써, 육체적 금욕적 금욕뿐만 아니라 기도가 수반된 일종의 ‘절규’(絶叫)의 몸짓이었다(삼하 12:16, 단

백성들을 구원시키는 내용을 강조한다. 그리고 부림절의 금식기도 부림절 행사<sup>3)</sup>에 금식기간을 참가하게 되었던 동기를 지적하고 전후조용하고 있다.

## 2.2 병행구문(Parallelism)

병행구문(Parallelism)은 동일한 표층적 언어 형식에 새로운 구성 요소를 넣어 다시 사용하는 기법인데, 행위의 반복성이나 내용의 역전 등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이성연, 2002: 251). 한편 병행구문은 정보성을 감소시키는 단점이 있다. 일반적으로 이해하기 쉽고 익숙한 표현은 흥미롭지 못해서 주목받지 못하게 마련이다. 따라서 생산자는 수용자의 흥미를 끌기 위해 텍스트의 정보성을 높일 필요가 있는데 비유나 상징이 그러한 의도로 사용된다고 볼 수 있다(송태운, 2005: 82).

본 절에서는 『에스터』 텍스트에서 사용하는 병행구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

### 1) 명사의 병행구문

명사의 병행구문은 명사가 동일한 표층적 언어에 병행 형식으로 배열되어 있는 자리에 새로운 구성요소를 넣어 사용하는 기법이다.

(37)[4-3]이에 그 조서를 역줄에게 부쳐 왕의 각 도에 보내니 십이월 곧 아달월 십삼 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대인을 노소나 어린아이나 부녀를 무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3:13).

(38)[6-1]그때 시완월 곧 삼월 이십삼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고 무릇 모르드개의 시키는 대로 조서를 써서 인도로부터 구스까지의 일백이십칠도 유대인과 대신과 방백과 관원에게 전 할새 각 도의 문자와 각 민족의 방언과 유대인의 문자와 방언대로 쓰되(8:9).

(39)[6-3]각 도 모든 관원과 대신과 방백과 왕의 사무를 보는 자들이 모르드

---

9:3, 온 3:5-9).

3) 『그랜드 종합 주석』(1996)에서 유대인들의 부림절 준수가 고정적으로 이루어진 시기가 (B.C.166-143년)부터일 것이다. 이 시대의 기록에 따르면 특별히 12월 14일을 ‘모르드개의 날’ 이라고 불렀다. 그리고 그 전날 제 13일은 에스터가 왕에 나아가기 전에 행한 기도과 금식을 기념하여 ‘금식하는 날’ 로 널리 행해졌고, 제 14일 새벽이 되면 회당에 모여 『에스터』를 읽는다. 책의 낭독과 함께 낭독자가 해석을 하는데, 이때 하만과 다른 박해자들의 이름이 나올 때면 저주의 외침과 동시에 발을 구르고 비탄의 온갖 소리를 지른다. 그리고 이때 아이들은 가장 무도회를 비롯한 각종 놀이를 즐기기도 한다.

개를 두려 워하므로 다 유대인을 도우니(9:3).

(40)[6-4]각 도, 각 읍,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부림일을 유대인 중에서 폐하지 않게 하고 그 자손 중에서도 기념함이 폐하지 않게 하였더라(9:28).

(37)에서는 피멸살하려는 대상으로 세 개의 명사 ‘노소’, ‘어린아이’, ‘부녀’를 나열하고 있다. 유대인들이 한명도 빼놓지 않고 멸족되는 어려운 상황을 표현하고 있다.

(38)에서는 먼저 유대인에게 구원을 주는 조서 반포의 대상으로 네 개의 명사 ‘유대인’, ‘대신’, ‘방백’, ‘관원’을 나열하고 있으며 반포의 방식으로 네 개의 명사 ‘각 도의 문자’, ‘각 민족의 방언’, ‘유대인의 문자’, ‘방언’을 나열하였다. 이는 사회 각 계층의 구성인원을 잘 보여주고 있으면, 조서의 정식성, 공정성, 투명성도 지키고 있다. 이러한 표현은 유대인이 확실히 구원 받았다는 것을 증명 해준다.

(39)에서는 왕궁에서 각 계층을 대표하는 구성인원인 ‘관원’, ‘대신’, ‘방백’, ‘왕의 사무’ 등 네 개의 명사를 나열함으로써 궁중에 있는 존귀하게 된 모르드개인의 높은 지위를 표현하고 있다.

(40)에서는 큰 지역에서 작은 지역에 이르기 까지 세 개의 명사 ‘각 도’, ‘각 읍’, ‘각 집’을 나열하는 것으로 표현하였다. 이는 유대인의 생활에서 부림절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또한, 각 조목들이 서로 점진적이고 텍스트 수용자에게 더 구체적인 이해의 공간을 제시해 줄 뿐만 아니라 텍스트가 구조적으로 점진성이 뚜렷하게 하였다.

## 2) 동사의 병행구문

동사의 병행구문은 동사가 동일한 표층적 언어에서 병행 형식으로 배열되어 있는 자리에 새로운 구성요소를 넣어 사용하는 기법이다.

(41)[4-3]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부쳐 왕의 각 도에 보내니 십이월 곧 아달월 십삼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대인을 노소나 어린아이나 부녀를 **무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3:13).

(42)[6-1]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대인에게 허락하여 저희로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도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저희를 치려 하는 자와 그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8:11).

(41)에서는 의미가 비슷한 일련의 동사들을 병행함으로써 표현적 공간을 확대하

였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겪고 있는 재난에 대해서도 깊게 묘사하였다. (42)는 (41)과 같은 방법으로 유대인들이 적을 무찌르는 상황에 대해 묘사했다. (41)과 (42)에서 유대인들에 대한 묘사로 상응하는 네 개의 동사, ‘죽이다’, ‘도륙하다’, ‘진멸하다’, ‘탈취하다’를 사용했다. 하만의 계획이 실패되고 유대인들이 승리를 거두는 반전을 대해 서로 대조되는 동사를 사용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문장을 안정적이게 하였고 텍스트에 대한 수용자들의 상상력을 불러일으켰다.

### 3) 구절의 병행구문

구절의 병행구문은 구절이 동일한 표층적 언어에 병행 형식으로 배열되어 있는 자리에 새로운 구성요소를 넣어 사용하는 기법이다.

- (43)[3-2]저의 삼촌의 딸 하닷사 곧 ①a.에스더는 부모가 없고 ①b.∅ (에스더는)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개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2:7).
- (44)[3-3]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열 a.두 달 동안을 행하되 여섯 달은 몰약 기름을 쓰고 여섯 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케 하는 기한을 마치며 (2:12)왕 이 b.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욱 사랑하므로 저가 모든 처녀보다 왕의 앞에 더욱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 머리에 면류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후를 삼은 후에...(2:17).
- (45)[4-5]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대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 낮 삼 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4:16).
- (46)[6-2]모르드개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면류관을 쓰고 자색 가는 베겔 옷을 입고 왕의 앞에서 나오니 수산 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8:15).

(43)에서 ①a와 ①b의 구조는 나열관계의 연결의미 ‘-고’에 기대어 대등하게 이어진 접속문이다. 여기서 ‘~는(가) ~가(이)~고’인 주어 중출 구조 형식의 병행구문을 이루고 있다. 그리고 고아인 에스더의 고단한 형편을 부각시켜서 텍스트 수용자에게 그녀가 과연 왕비로 간택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관심을 이끌어내고 있다. (44)에서 a는 ‘시간 + N을 쓰다’의 형식이 세 번 병행됨으로 아하수에로 왕 시대의 복잡한 왕후 간택방법과 아하수에로 왕의 사치적인 면, 선발형식의 화려한 모습을 수용자에게 잘 보여준다. b는 ‘모든 N보다 더욱’을 두 번 병행함으

로써 에스더가 다른 처녀-왕후 선발은 받으러 온 처녀보다, 특별한 대우를 얻고 왕후로 선발된 이유로 설명해 준다. 이로써 에스더가 왕후로 선발하게 되는 사건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미리 세운 계획임을 암시하고 있다. (45)에서는 ‘지...말다’를 병행함으로써 유대인들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구원받는 방법과 결심이 나타난다. (46)은 ‘Adj + N을/를 + V고 + 고’의 형식 속에서 형용사, 명사, 동사를 병행함으로써, 왕 앞에 존귀를 얻게 되는 모르드개의 모습을 잘 표현하게 된다. 다음 (47)-(49)에서는 ‘의문문+약속문’에 기댄 채 병행되고 있는 병행구문의 대상이 되었다.

- (47)[5-1]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a.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뇨 b.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5:3).
- (48)[5-1]잔치의 술을 마실 때에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a.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b.나라의 절반이라도 시행하겠노라(5:6).
- (49)[6-3]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이르되 유대인이 도성 수산에서 이미 오백 인을 죽이고 멸하고 또 하만의 열 아들을 죽였으니 왕의 다른 도에서는 어떠하였겠느냐 이제 a.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b.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또 한 시행하겠노라(9:12).
- (50)[5-6]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선히 여기시거든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7:3).

(47)-(49)에서는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의 요구에 대해서 질문하는 내용이 a와 b의 텍스트 구조 ‘~무엇이뇨~하겠노라’라는 ‘의문문+약속문’에 기댄 채 병행되고 있다.

(50)에서는 에스더가 유대민족을 위해 아하수에로 왕에게 요구한 일이 왕이 제기한 ‘내 + N대로 + 내 + N을/를 내게 주다’의 형식으로 병행되어 나타났다. (50)과 (47)-(49)의 ‘~무엇이뇨~하겠노라’는 의문형식이 대응되어 나타나 선행의문을 제기하여 수용자로 하여금 스스로 답을 찾게 했다. 이로써 에스더의 소청이 이루어질 것을 강하게 나타낸 것이고 문장 전후도 긴밀히 연결되었고 점진적이고 논리적이다. 다음 (51)-(55)에서는 ‘-ANI B이라’에 기댄 채 병행되고 있는 병행구문의 대상이 되었다.

- (51)[T1-1]a.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된 것이니 b.아하수에로는 인도로 구스까지 일백이십 칠 도를 치리하는 왕이라(1:1).
- (52)[T2-1]a.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면류관을 정제하고 왕의 앞으로 나오오 게하여 그 아리따움을 못 백성과 방백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 b.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1:11).
- (53) [T3-2] a.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b. 이름은 모르드개라 저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2:5).
- (54) [T3-3] a.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고하지 아니하니 b. 이는 모르드개가 명하여 고하지 말라 하였음이라(2:10).
- (55) [T4-4] a. 대궐 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b. 굶은 베를 입은 자는 대궐 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4:2).

위에(51)-(55)의 문장유형은 선행절에서 근거로 표현할 때 쓰는 연결의미 ‘-니’, 후행절에서 사실을 나타내는 평서형어미 ‘-이라’와 결합된 평서문이 다4). 각각의 문장은 ‘-A니 B이라’식의 구조적 전개 형식을 취했다. 선행절은 텍스트속의 인물, 사건, 원인을 이끌어냈다. 후행절 b는 선행절 a를 이끌어내어 인물, 사건, 원인에 대한 성세한 설명을 하였다. 이로써 ‘-A니 B이라’의 결합형식에 의해 성경의 진실성과 역사성을 증명하였다. 다음 (56)-(64)에서는 종결의미 ‘-니라’에 기댄 채 병행되고 있는 병행구문의 대상이 되었다.

- (56) [T1-2] 왕이 여러 날 곧 일백팔십 일 동안에 그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1:4).
- (57) [T4-1]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방백과 신복을 향응하고 또 각 도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풍부함을 따라 크게 상주니라(2:18) 사실하여 실정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의 앞에서 궁중 일기에 기록하니라(2:23).
- (58) [T4-3] 정월 십삼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도 방백과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곧 각 도의 문자와 각 민족의 방언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치니라(3:12).
- (59) [T4-5] 모르드개가 가서 에스더의 명한 대로 다 행하니라(4:17).
- (60) [T5-2] 그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가 이르되 오십 규빗이나 높은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개를 그 나무에 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나아가소서 하만이 그말을 선히 여기고 명하여 나무를 세우니라(5:14).
- (61) [T5-5] 하만이 왕복과 말을 취하여 모르드개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케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니라(6:11).
- (62) [T5-6]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나아가니라(7:1).

4) 『표준국어대사전』(1999)에서 나라: 「어미」 ‘이다’의 어간, 받침 없는 형용사 어간, ‘ㄹ’ 받침인 형용사 어간 또는 어미 ‘-으시-’ 뒤에 붙어 (예스러운 표현으로) 해라할 자리에 쓰여, 진리나 오래 있는 사실을 일러 줄 때에 예스럽게 쓰이는 종결 어미.



- (63) [T6-7] 모르드개를 달고자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7:10).
- (64) [T6-1] 왕이 하만에게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개에게 준지라 에스더가 모르드개로 하만의 집을 주관하게 하니라(8:2)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취소할 수 없음이니라(8:8) 왕의 명이 심히 급하매 역졸이 왕의 일에 쓰는 준마를 타 빨리 나가고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라(8:14).

(56)-(64)에서는 평서형어미 ‘-니라’ 로 끝을 맺고 있는 병행구문이다. 텍스트 생산자가 에스더의 성경 이야기 중에 어미 ‘-니라’ 병행구조를 사용하였다. 이는 텍스트의 처음에서 끝까지 직접 겪은 것을 엄밀하게 보여준 것이다.<sup>5)</sup> 다음 (65)-(72)에서는 평서형 종결어미 ‘-더라’ 에 기댄 채 병행되고 있는 병행구문의 대상이 되었다.

- (65) [T1-2] 마시는 것도 규모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궁내 관리에게 명하여 각 사람으로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1:8).
- (66) [T2-1] 그러나 왕후 와스디가 내시의 전하는 왕명을 좇아 오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중심이 불붙는 듯하더라(1:12).
- (67) [T3-2]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 잡아 갈 때에 모르드개도 함께 사로잡혔더라(2:6) 저의 삼촌의 딸 하닷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고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개가 자기 딸 같이 양육하더라(2:7).
- (68) [T3-3] 해개가 이 처녀를 기뻐하여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케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에서 의례히 주는 일곱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2:9). 모르드개가 날마다 후궁 뜰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 것을 알고자 하더라(2:11).
- (69) [T4-2]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개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고하였더니 저희가 모르드개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고하였더라(3:4) 저희가 모르드개의 민족을 하만에게 고한 고로 하만이 모르드개만 죽이는 것이 경하 다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개의 민족을 다멸하고자 하더라(3:6).
- (70) [T4-5]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 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

5) 『표준국어대사전』(1999)에서 나라: 「어미」  
 ‘이다’의 어간, 받침 없는 형용사 어간, ‘ㄹ’ 받침인 형용사 어간 또는 어미 ‘-으사-’ 뒤에 붙어 (예스러운 표현으로) 해라할 자리에 쓰여, 진리나 오래 있는 사실을 일러 줄 때에 예스럽게 쓰이는 종결 어미.

라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화를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앞이더라**(7:7)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 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의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가로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우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7:8).

(71)[T6-3] 모르드개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하매 이 사람 모르드개의 명성이 각 도에 퍼지더라(9:4) 곧 함므다다의 손자요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열 아들을 죽였으나 그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9:10) 왕의 각 도에 있는 다른 유다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대적들에게서 벗어나며 자기를 미워하는 자 칠만 오천 인을 도륙하되 그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9:16).

(72)[T6-3] 그러므로 촌촌의 유대인 곧 성이 없는 고을 고을에 거하는 자들이 아달월 십사일로 경절을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더라**(9:19) 각 도, 각 읍,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부림일을 유대인 중에서 폐하지 않게 하고 그 자손 중에서도 기념함이 폐하지 않게 하였**더라**(9:28) 정한 기한에 이 부림일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유대인 모르드개와 왕후 에스더의 명한바와 유대인이 금식하며 부르짖은 것을 인하여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가 있음이**더라**(9:31) 에스더의 명령이 이 부림에 대한 일을 견고히 하였고 그 일이책에 기록되었**더라**(9:32).

(65)-(72)에서는 평서형 ‘-더라’로 끝을 맺고 있는 병행구문이다. (65)-(72)의 병행구조 ‘-더라’는 (56)-(64)의 ‘-니라’보다 더 상세하게 에스더의 역사적 사건이 진실 되고 정확하며 직접 견증(見證)한 것임을 보여준다.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65)-(67)은 왕궁의 규칙과 왕후 와스디의 폐위를 나타낸다. (67)은 모르드개와 에스더의 신분관계를 나타낸다. (68)-(69)에서는 에스더가 왕후로 간택되게 함을 나타내는 병행구문이다. (69)는 하만의 음모이고, (70)은 하만의 음모를 드러내게 되는 것을 기록하는 병행구문이다. (71)-(72)는 유대민족의 최종 승리를 나타내는 병행구문이다.

텍스트 생산자가 진실한 사건임을 표현해 주는 구문구조<sup>6)</sup> 방식을 사용하면서 자신이 『에스더』의 역사 사건의 증인의 신분임을 나타내고 있으며, 자신이 경험한 역사의 진실을 강조하였다. 또한 어미 ‘-더라’로 텍스트 전체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다. 다른 면에서 보면 텍스트 생산자가 동일한 구문구조 형식으로 『에스더』

6) 『표준국어대사전』(1999)에서 데라: 「어미」

‘이다’의 어간, 용언의 어간 또는 어미 ‘-으시-’, ‘-았-’, ‘-겠-’ 뒤에 붙어

해라할 자리에 쓰여, 화자가 과거에 직접 경험하여 새로이 알게 된 사실을 그대로 옮겨 와 전달한다는 뜻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 어미 ‘-더-’와 어미 ‘-라’가 결합한 말이다.

에서 발생한 각 사건이 우연이 아닌 필연적인 것임을 교묘하게 암시한다. 더 나아가서 텍스트 수용자가 『에스터』의 이야기를 통해 우연히 발생한 일을 부정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증명하였다. 즉, 하나님은 ‘역사의 하나님’임을 증명하게 된다. 이런 구문 구조는 하나님이 텍스트의 진정한 주체를 암시하는데 사용된다.

(73)[6-3]유대인이 칼로 그 모든 대적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마음대로 행하고(9:5) 유대인이 또 도성 수산에서 오백인을 죽이고 멸하고(9:6)또 바산다다와 달본과 아스바다와(9:7) 보라다와 아달리아와 아리다다와(9:8) 바마스다와 아리새와 아리대와 왜사다(9:9).

(73)에서 주목할 것은 위의 다수 병행구조에서 대부분은 흡수 병행구조이다. (73)의 큰 병행구조 속에 작은 병행구조가 포함되어 있다. (73)의 세 개의 단순한 구절은 하나의 큰 병행구조를 이루고 있다. 그 중 하나의 단순한 구절은 작은 병행구조 하나를 표현하고 있다.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74)



[그림 3] 흡수 병행구조 구성도

(74)는 병행구조는 병행배열을 통해서 분장의 입체적 의미를 점층적으로 보여주었다. 또한, 문장들이 서로 교체됨으로써 표의적 공간을 확대하고 표현적 효과를 강화시킨다.

### 2.3 환언(Paraphrase)

환언(Paraphrase)은 동일한 대상을 가리키는 다른 표현을 사용하여 의미 내용을 반복하는 기법을 말한다. 이는 텍스트 생산자가 의도하는 의미내용의 가능한 모든

측면을 포착하기 위해 사용되는 경우가 많은데, 의미 상승의 효과를 가져 온다. 환언되는 내용은 서로 등가적 관계(Equivalent relation)를 가진다(이성연, 2002: 249).

『에스더』에서 환언 기법의 주요 대상(내용)을 보면 ‘시간적 지칭 환언’, ‘인물의 신분 지칭 환언’, ‘사건상황 지칭 환언’ 등이다.

먼저, 『에스더』에 나타난 시간적 지칭 환언에 대하여 살펴보면 (75)-(76)과 같다.

(75)[T4-3]아하수어로 왕 ①a.십이년 정월 곧 ①b.니산월에 우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십이월 곧 아달월을 얻은지라(3:7)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부쳐 왕의 각 도에 보내니 ②a.십이월 곧 ②b.아달월 십삼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대인을 노소나 어린아이나 부녀를 무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3:13).

(76)[T6-3]a.아달월 곧 b.십이월 십삼일은 왕의 조명을 행하게 된 날이라 유대인의 대적이 저희를 제어하기를 바랐더니 유대인이 도리어 자기를 미워하는자를 제어하게 된 그 날에(9:1).

(75)의 ①a와 ①b, ②a와 ②b 의 기본 의미소는 [+시간]으로 동일한 시간을 나타내지만 의미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해 환언하였다. 다시 말해 동의관계에 있는 (75)의 ① ‘정월→니산월’ 과 , ② ‘십이월→아달월’ 을 유대력<sup>7)</sup> 명칭으로 각각 환언시켰다. 이를 통해 (75)에서 하만이 유대민족을 말살하려는 날과 (76)에서 에스더가 생명을 걸고 간청을 하였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유대민족이 구원 승리를 얻는 날이 동일한 시간임을 나타내어 이 사건들이 결코 우연이 아닌 필연적임을 암시하였다.

다음으로 『에스더』에 나타난 주요인물의 신분 지칭 환언에 대한 살펴보면 (77)-(86)과 같다.

(77)[T3-2]①a.저의 삼촌의 딸 하닷사 곧 ①b.에스더는 부모가 없고 ①c.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②a.처녀라 그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개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2:7) ②b.모르드개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개가 ②c.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헤개의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 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꿈을 얻더라(2:15).

(78)[T4-5]이 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②d.유대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놀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7) 현재의 태양력으로 니산월은 3-4월, 아달월을 2-3월에 해당된다.

- ②e.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4:14).
- (79) [T3-2] ③a. 성 수산에 한 유대인이 있으니 이름은 ③b. 모르드개라 ③c. 저는 베냐민 자손이니 ③d. 기스의 증손이요 ③e. 시므이의 손자요 ③f. 야일의 아들이라(2:5).
- (80) [T5-4] ④a.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케 하시려면(6:7) 그 왕복과 말을 ④b. 왕의 방백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붙여서 왕이 존귀케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④c. 왕이 존귀케 하기를 기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6:9).
- (81) [T5-5] 하만이 왕복과 말을 취하여 모르드개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d. 존귀케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니라(6:11).
- (82) [T4-3]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대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⑤a.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3:10).
- (83) [T5-6] ⑥b. 에스더가 가로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7:6).
- (84) [T5-8] 당일에 아하수세로 왕이 ⑤c. 유대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개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고한 고로 모르드개가 왕의 앞에 나오니(8:1).
- (85) [T6-1] 가로되 왕이 만일 즐겨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선히 여기시며 나를 기쁘게 보실진대 조서를 내리사 ⑤d.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도에 있는 유대인을 멸하려고 꾀하고 쓴 조서를 취소하소서(8:5).
- (86) [T6-3] 곧 ⑤e. 함므다다의 손자요 유대인의 대적 하만의 열 아들을 죽였으나 그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9:10).

(77)-(78)에서는 ①은 ‘에스더’에 대한 호칭을 등가적 관계인 ‘하닷사 → 에스더 →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로 환언 시키고 있다. ②는 에스더의 신분에 대해 ‘처녀 → 모르드개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 모르드개가 자기 딸 같이 양육하는 에스더 → 유대인 → 왕후’로 환언하였다. 그리고 에스더의 족보는 소개하지 않고 모르드개의 삼촌만 언급하였다. 이는 에스더가 미약한 가문이지만 하나님의 은총과 섭리에 의해 왕후가 되고 동족을 구할 수 있었다는 것을 은연중에 드러내기 위함이다. 이러한 언어기법을 통해 새로운 정보를 제시함으로써, 텍스트 생산자가 의도하는 내용을 다양한 측면에서 포착할 수 있도록 효과를 높여 준 것이다.

(79)-(81)에서 ③a와 ③b의 상위어이고, b-f는 상위어로 ‘한 유대인’으로 ‘모르드개 → 베냐민 자손 → 기스의 증손 → 시므이의 손자 → 야일의 아들’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이는 모르드개의 신분을 하위관계로 환언하여 서술을 이루는 것이다. ③a와 b-f에서는 동의관계와 상하관계의 환언을 섞어 사용하였다. 이런

환언기법을 사용하여 족보를 중요시하는 유대민족 전통<sup>8)</sup>을 보여주는 반면에, 더욱 이는 장차 유대인들의 생명을 구하는데 공을 세울 모르드개에 대하여 미리 소개하려는 의도가 더 강함을 볼 수 있다. ④는 모르드개의 역사 신분을 다양한 표현들이 환언되고 있다. 텍스트 수용자에게 ‘유대인 → 왕께 아뢰되 사람을 → 왕의 방백 중 가장 존귀한 자 → 왕이 존귀케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사람 → 왕이 존귀케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사람’ 등은 지시대상이 명시화되는 효과를 준다. 이러한 환언 수법을 통해 의미 상승 작용을 하는 것이다.

(82)-(86)의 ⑤는 하만을 지칭하는 다른 표현들인데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 유대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 에스더가 가로되 대적과 원수 → 유대인의 대적’ 을 환언하여 하만이 모르드개 한 사람의 원수가 아닌 유대민족한 민족의 대적으로 부각되었다. 이를 통하여 의미 상승을 극대화 하였다.

더불어 『에스더』에 나타난 기타 성분 지칭 환언에 대하여 살펴보면 (87)-(90)과 같다.

- (87)[T3-1] 모르드개가 대궐 문에 앉았을 때에 문 지킨 **①a. 왕의 내시 b. 빅단과 c. 데레스** 두 사람이 아하수에로 왕을 원한하여 모살하려 하거늘 (2:21).
- (88)[T3-2] 저희가 모르드개의 민족을 하만에게 고한 고로 하만이 모르드개만 죽이는 것이 경하다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③a. 유대인 곧 b. 모르드개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3:6).
- (89)[T3-3]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c.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도 백성중에 흩어져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보다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3:8).
- (90)[T4-5]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대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a. 금식 하되 밤낮 삼 일을 b.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4:16).
- (91)[T6-4] 이 달 이 날에 유대인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①a.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①b.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9:22)... 곧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모든 유대인의 대적 하만이 **②a. 유대인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부르 곧 제비를 뽑아 **②b. 저희를 죽이고 멸하려하였으나**(9:24).

(87)-(89)에서 나타나는 기타 인물들의 신분을 환언하여 표현하고 있다.

8) 유대인의 족보 중시 사상은 구약 창세기 10~11장, 역대상 1~9장, 그리고 신약 마태복음 1장과 누가복음 3장이 대표적인 예이다.

(87)-(88)①a는 ①b와 ①c의 상위어다. ②a는 ②b와 ②c의 상위어다. ③ ‘유대인 → 모르드개의 민족 → 한 민족’은 동의관계를 환언하여 서술을 이루는 것이며 모르드개의 동족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다. 『에스더』에서 나타난 기타 인물들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이로써 성경의 진실성과 엄밀성은 환언을 통해 깊이 있게 증명되고 있다.

(90)의 ‘금식하되’ →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짧은 어사에서 긴 어사로 환언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91)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와 ‘유대인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 저희를 죽이고 멸하려 하였으나’는 긴 어사까지 환언이 이루어지면서 유대인의 위기가 절묘하게 드러난다.

마지막으로, 에스더가 왕을 세 번 만난 상황지칭도 환언되었으며 이는 (92)-(97)과 같다.

(92)[T5-1]①a. 잔치의 술을 마실 때에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㉔.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5:6)

(93)[T5-6]①b.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가로되 왕후 에스더여 ㉔.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7:2).

(94)[T6-3]①c.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이르되 유대인이 도성 수산에서 이미 오백 인을 죽이고 멸하고 또 하만의 열 아들을 죽였으니 왕의 다른 도에서는 어더하였겠노 이제 ㉔.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또한 시행하겠노라(9:12)

(95)[T5-1]에스더가 대답하여 가로되 ㉔.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니 이다(5:7).

(96)[T5-6]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선히 여기시거든 ㉔.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7:3).

(97)[T6-3]에스더가 가로되 왕이 만일 선히 여기시거든 수산에 거하는 유대인으로 내일도 오늘 날 ㉔.조서대로 행하게 하시고 하만의 열 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달게 하소서(9:13).

위에서 ①a~c는 ‘에스더’가 왕을 만났던 처소를 환언의 기법을 통해 다양하게 나타났으며 그 다양성은 ‘잔치의 술을 마실 때 →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 →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이르되 유대인이 도성 수산에서 이미 오백 인을 죽이고 멸하고 또 하만의 열 아들을 죽였을 때’로 나타낸다. 한편 ㉔는 왕이 에

스더의 소청과 요구에 대해 질문하는 내용이고 ㉞~㉠은 에스더의 소청과 요구의 내용을 환언 기법을 통해 나타낸다.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니 이다 →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 조서대로 행하게 하시고 하만의 열 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달게 해 주소서’ 를 환언함으로써 수용자의 인지 환경을 새롭게 하여 의미 상승의 효과를 얻고 있다. 이것은 텍스트 전체의 점진감이 더욱 돌출하게 되고 구조를 더욱 안정되게 하였으며, 수용자들의 머릿속에 하나의 직관적인 인상을 제공하였다.

## 2.4 대용형(Pro-forms)

대용형(Pro-forms)은 텍스트의 명확성은 다소 떨어지더라도 표층 텍스트를 짧고 간결하게 만들기 위해 사용하는 응결성 문법 장치 중의 하나이다. 텍스트의 통보적 관점에서 볼 때 동일한 내용이 될 경우 되풀이하지 않고, 자체의 독립된 의미 내용이 없는 짧은 언어 형식을 사용해서 표층 구조를 간결하게 만드는 기법인 것이다(이현호 외, 1997: 23-24).

『에스더』 텍스트에서 사용된 대용형을 살펴봄으로써 대용 방향과 대용 성분에 의한 대용형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다.

### 2.4.1 선행대용

선행대용은 지시 대상의 뒤에 대용형을 사용하는 것으로 공지시(coreference)<sup>9)</sup>의 방향이라는 면에서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다. 처리 중인 개념 내용이 이미 앞에서 명확하게 규정되었기 때문인 것이다. 다음은 (98)의 b ‘그 날’의 선행대용이다.

(98) [T4-3]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부쳐 왕의 각 도에 보내니 십이월 곧 **a. 아달월** 십삼일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노소나 어린아이나 부녀를 무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3:13) 이 명령을 각 도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b. 그 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하였더라(3:14).

위의 (98)는 바로 앞에 선술 언급인 a ‘아달월’을 가리키기 때문이다. 지시대

9) 공지시(共指示)란 ‘의미에서 지시 대상을 공유하는’의 뜻이다.



상과의 거리가 가까워서 수용자의 활동 기억 장치 안에서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이며 표층 구조의 간결성을 위해 사용된 것이다.

## 1)인칭대명사

인칭대명사는 사람을 가리키는 대명사로서 인대명사(人代名詞) 또는 사람이름대명사라고 부르기도 한다. 인칭대명사에는 1인칭 대명사, 2인칭 대명사, 3인칭대명사가 있다. 그리고 3인칭에는 미지와 부정<sup>10)</sup>, 재귀 대명사가 있다. 『에스더』 텍스트에서도 대용형으로 인칭 대명사를 사용하고 있다. 다음은, (99)-(100)에서는 ‘에스더→그대’의 인칭대용이다.

(99)[T5-1]왕이 이르되 왕후 **a.에스더**여 **b.그대**의\_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도 **c.그대**에게 주겠노라(5:3) 잔치의 술을 마실 때에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d.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e.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5:6).

(100)[T5-6]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가로 되 왕후 에스더여 **f.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g.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7:2).

(99)-(100)에서 2인칭 단수대명사 b-g ‘그대’는 a ‘에스더’를 대용한다. 지시대상과의 거리가 가까워서 수용자의 활동 기억 장치 안에서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이며 표층 구조의 간결성을 위해 사용된 것이다. 다음은, (101)에서는 ‘이 악한 하만→그가’의 인칭대용이다.

(101)[T5-6]아하수어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일러 가로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a.그가** 어디 있느뇨(7:5) 에스더가 가로되 대적과 원수는 **b.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7:6).

(101)에서 a3인칭 단수명사 ‘그가’는 b ‘이 악한 하만’을 대용한다. 이처럼 후행대용을 함으로써 수용자에게 ‘이 악한 하만’이라는 사람에 대한 기억을 강화

10)안정순(2004: 36)에서 미지는 흔히 미지칭이라고 일컫는 것으로서 가리킴을 받는 사람의 이름이나 신분을 정확하게 모를 때 사용한다(예: 누구, 어느 분, 어느 어른). 부정은 흔히 부정칭이라고 말하는 것인데 특정한 사람을 가리키지 않을 때 쓰인다(예: 아무, 아무 분, 아무 어른).

하고 동시에 텍스트에 대한 연결능력을 갖게 된다.

- (102)[2-2]아하수어로 왕이 명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하였다 하는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부녀에게 전파되면 a.저희도 그 남편을 멸시할 것 인 즉.....(1:17).
- (103)[3-4]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개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대인임을 고하였더니 b.저희가 모르드개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고하였더라(3:4).
- (104)[6-1]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대인에게 허락하여 c.저희로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도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저희를 치려하는 자와 그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8:11).

위의 (102)-(104)에서 ‘저희’ 를 보면, a는 왕의 명령을 거절한 왕후 와스디의 소문을 듣게 될 페르시아의 모든 부녀들, b는 대궐문 앞에 있는 왕의 신복들, c는 각도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진 사람들의 대용형으로 쓰였다. ‘저희’ 는 1 인칭 대명사 ‘나’ 의 낮춤말 ‘저’ 의 복수형이지만 여기서는 모두 ‘3인칭 복수형’ 의 의미로 쓰이고 있어서 텍스트 수용자에게 혼동을 줄 수 있다. 따라서 a는 ‘그녀들’ 로, b는 ‘그들’ 로, c는 ‘자기들’ 로 바꾸는 것이 좋겠다.

## 2) 재귀대명사

전통적으로는 재귀칭이라 불려왔고 최근에는 흔히 재귀대명사로 부른다. 앞에 나온 제 2, 3인칭 주어가 되풀이되지 않게 위하여 사용되는 인칭대명사이다.

- (105)[3-2]저의 삼촌의 딸 하닷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고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개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2:7)...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고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개가 명하여 고하지 말라하였음이라(2:10).
- (106)[3-4]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개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대인임을 고하였더니 저희가 모르드개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고하였더라(3:4).
- (107)[4-5]에스더가 왕의 명으로 자기에게 근시하는 내시 하 닻을 불러 명하여 모르드개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슨 연고인가 알아보라 하매(4:5)...또 유대인을 진멸하라고 수산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뵈어 알게 하고 또 저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의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4:8).

위의 재귀대명사 ‘자기’의 쓰임을 보면, 재귀대명사는 동일 문장에서 선행하는 동일 지시 대상을 다시 받는 특별한 형태의 대명사를 말하는데, (105)에서 이 회(모르드개와 에스더 각각 지시), (106)에서 일 회(에스더 지시), (107)에서 일회(왕 지시) 선택되었다. 이들 대응형은 재귀대명사의 선행사 조건인 ‘유정명사일 것, 주어일 것’(최재희, 2004: 93)을 충족하고 있으며, 발화의 표층 구조를 간결하게 만드는 효과를 얻고 있다.

### 3) 지시대명사

지시대명사는 사물을 가리키는 대명사를 말한다. 『에스더』 텍스트에서도 지시대명사가 대응형으로 사용되고 있다.

(108)[T5-7]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말로 고발한 **①a. 모르드개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고가 오십 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①b.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가로되 하만을 **①c. 그 나무**에 달라 하매(7:9).

(109)[T6-3]곧 **②a. 함므다다의 손자요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열 아들**을 죽였으나 **②b. 그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9:10) 왕의 각 도에 있는 다른 유다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대적들에게서 벗어나며 **③a. 자기를 미워하는 자** 칠만 오천인을 도륙하되 **③b. 그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9:16).

(108)-(109)는 사물 지시대명사인데, ‘그’는 지시관형사로서 후행 명사와 결합하여 명사구를 이루는 ‘상황적 지시어’로 쓰인 것은 아니다. ‘그’의 지시대상이 선행문맥에 나타나 있어서 전술언급 어휘 항목의 정보를 대응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응어로서 선행대용인 것이다. 다른 대응형과 마찬가지로 표층구조의 간결성과 경제성을 위해 사용되었다.

(108)의 ①b와 ①c ‘그’는 관형어와 명사의 결합 형태인 대응어를 사용한 것이다. ①b와 ①c ‘그’는 ①a ‘모르드개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고가 오십 규빗 되는 나무’를 대응하고 (109)의 ②b ‘그재산’은 ②a ‘함므다다의 손자요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열 아들의 재산’을 대응하는 것이고 ③b와 ③c ‘그’는 ②a ‘자기를 미워하는 자’를 대응하는 것이다. 이들은 위의 각 부위를 대응하는 선행대용이다. 이는 표층 텍스트의 간결성과 경제성을 위해 사용되었다.

(110)[T5-4]그 왕복과 말을 왕의 방백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붙여서 **a.**

왕이 존귀케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b.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케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6:9).

(110)은 전술언급 정보를 대용하는 대용어로서 선행대용인 것이다. 여기서 처소 지시대명사가 대용형으로 사용된 것이다. b의 ‘그’는 a ‘왕이 존귀케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사람’을 대용한다.

#### 4) 대용 부사

수식언인 대용 부사 지시부사와 대용 동사의 부사형이 굳어져서 사용된다. 『에스더』 텍스트에서는 후자가 사용되었다.

(111)[T5-4]a.그 왕복과 말을 왕의 방백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붙여서 왕이 존귀케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케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사람에게는 **b.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6:9).

(111)에서는 대용형으로써 대용부사가 b의 ‘이같이’가 유일하게 사용되었다. ‘이같이’는 선행부분 a를 대용하므로 선행대용이다. 이는 텍스트의 경제성도 유지하게 되고 텍스트의 언어로 하여금 더욱 간결하게끔 한다.

#### 2.4.2 후행대용

후행대용은 표층 텍스트에 지시 대상 표현 보다 대용형을 먼저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데, 불활성성을 생성하여 텍스트 수용자의 궁금증과 관심을 고조시키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따라서 표층 텍스트 상에 일시적인 문제성을 야기시켜 수용자들로 하여금 그 발화 속으로 몰입하게 만든다(안정순, 2004: 40). 대용형 사용은 보편적 방법이 아니므로 『에스더』에서도 드물게 나타난다.

(112)[T4-2]①a.저희가 모르드개의 민족을 하만에게 고한 고로 하만이 모르드개만 죽이는 것이 경하다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대인 곧 ①b.모르드개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3:6).

(113)[T4-3]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①c.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도 백 성중에 흠어져거 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보다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 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3:8)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부쳐 왕의 각 도에 보내니 십이월 곧 아달월 십삼일 하루 동안에 모든 ①d.유다인을 노소나 어린아이나 부녀를 무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3:13).

(114)[T5-6]②a.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선히 여기시거든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주소서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7:3) 나와 ②b.내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7:4).

(112)-(114)에서는 3인칭 대명사 ①a ‘저희’ 는 전술언급 정보인 ①c ‘한 민족’ 을 대용한다. 더 구체적으로 ①c ‘한 민족’ 은 ①d의 ‘유다인’ 을 가리킨다. 따라서 ①a ‘저희’ 는 ①d ‘유다인’ 을 대용한다. 또한 ①c ‘유다인’ 은 ①a ‘모르드개의 민족’ 을 대용한다. (114)의 ②b의 ‘내’ 는 ‘에스더’ 를 대용한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즉, ①a ‘모르드개의 민족’ 또한 ①d ‘유다인’ 을 대용한다. 이처럼 대용법을 택한 이유는 표층 텍스트의 경제성과 간결성을 위해 사용한 것이다.

## 2.5 생략(Ellipsis)

생략(ellipsis)은 텍스트의 간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공헌하는 또 다른 응결성의 장치다. 그러나 절차적 접근방식의 관점에서, 생략이 허용되는 경우는 다만 텍스트 처리 과정에 표층 텍스트상의 불연속성이 특징적으로 포착될 경우에 한해서이다(이현호 외, 1997: 25) 즉, 텍스트가 너무 복잡해서 의외의 불연속성이 생겨났을 경우에 한해서 생략이 일어난다.<sup>11)</sup> 그러나 주어진 보기(예문이)가 정말로 생략적 텍스트인가하는 문제는 결국 경험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텍스트 사용자들은 해당 상황에 대한 생략의 적절성을 고려해서, 어느 정도까지의 생략이 효율성을 해치지 않고 오히려 이를 높이는 데 공헌할 것인가를 판단해야 한다.

(115)[T4-5]①.에스더가 명하여      (하닥에게) 모르드개에게 회답하되(4:15)

②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11) 김일용(1982: 36-37)에서는 생략 현상은 경제적인 이유, 내용적인 이유, 문제적인 이유 때문에 나타난다고 했다. 그러나 생략 현상이 나타나는 근본 원인은 말하는 노력을 줄이고 되풀이 되는 것을 피하려는, 말하는 이의 심리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밤낮 삼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②a.Ø (내가) 죽으면 (내가)b.Ø 죽으리이다(4:16).

(116)[T5-6]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가로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Ø (내가)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Ø (내가)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7:2).

(115)Ø 표기가 된 부분은 생략된 부분이며 Ø의 위치에 있을 내용은 ‘내가’이다. 왜냐하면 Ø 자리의 주어는 ①의 ‘에스더’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이다. 이 부분의 내용은 모르드개와 에스더의 대화이므로 생략된 제 일인칭이 ‘내가’라는 것을 추측하여 낼 수 있다. 따라서 ②a와 ②b의 경우 ②a를 복원한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가 의미전달이 더 쉬울 텐데 ‘aØ 죽으면 bØ 죽으리이다’처럼 모두 생략하여 언어 표현의 결제성을 극대화하였다. 그 이유는 생산자의 ‘의미 강조성’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이는 아무리 귀중한 생명이라도 민족을 구하는 길이라면 내던질 수 있다는 에스더의 결사적인 민족심을 강조하려는 의도에서이다.

(116)Ø 표기한 부분은 생략된 부분이며 Ø 곳의 주어, 역시 ‘내가’이다. 이 구절은 왕과 에스더의 대화 가운데서 에스더의 요구에 대한 왕의 대답이다. 그리하여 생략한 제 일인칭이 ‘내’라는 것을 추측하여 낼 수 있다. 왜냐하면 두 구절이 매우 가깝게 위치하며 이로써 수용자는 매우 쉽게 생략된 주어를 찾아낼 수 있기 때문이다.

(117)[T3-2]도성 수산에 한 유대인이 있으니 이름은 ①a.모르드개라 저는 베냐민 자손이니 ①b.Ø (모르드개가) 기스의 증손이요 ①b.Ø (모르드개가)시므이의 손자요 ①b.Ø (모르드개가)야일의 아들이라(2:5) ①b.Ø (모르드개가)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나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때에 모르드개도 함께 사로잡혔더라(2:6) 저의 삼촌의 딸 하닷사 곧 ②a.에스더는 부모가 없고 ②b.Ø (에스더가)용모가 ②c.Ø (에스더가)곱고 ②d.Ø (에스더가)아리따운 처녀라 그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개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2:7).

(117)의 Ø 부분은 주어가 생략된 빈 공간이며 모두 아래, 위 주어를 연결하여 생략한 것이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첫 번째 구절에서 생략된 주어를 찾아낼 수 있다. 더 구체적으로 (117)의 ①b는 ①a모르드개에 대한 신분묘사와 단문간의 대등관계를 이루는 Ø는 모두 첫 번째 구절의 주어로 채울 수 있다. 뜻이 같은 다른 표현으로 ②b는 에스더의 신분에 대한 묘사이며 주어는 모두 첫 번째 단문의 주어 ②a에스더로 메울 수 있다. 이와 같은 주어의 부족은 인식상의 개념이며 언어의

미성분의 부족으로서 구절의 부족은 아니다. 만약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여 넣으면 각 구절은 모두 각자 존재할 수 있으나 전반적인 텍스트의 구조는 오히려 분산되고 복잡한 느낌을 주게 된다. 그러므로 『에스더』의 많은 구절에서 주어를 생략하였다.

- (118)[T3-3]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에는 그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하고(2:13) ∅ (처녀들이)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는 둘째 후궁으로 돌아와서 비빔을 주관하는 내시 사아스가스의 수하에 속하고 왕이 저를 기뻐하여 그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더라(2:14).
- (119)[T4-1] 모르드개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고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개의 이름으로 왕에게 고한지라(2:22) ∅ (왕) 사실하여 실정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의 앞에서 궁중 일기에 기록하니라(2:23).
- (120)[T4-4] 모르드개가 이 모든 일을 알고 그 옷을 찢고 붉은 베를 입으며 재를 무릅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 통곡하며(4:1) ∅ (모르드개가) 대궐 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붉은 베를 입은 자는 대궐 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4:2).
- (121)[T6-3] 곧 함므다다의 손자요 유대인의 대적 하만의 열 아들을 죽였으나 그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9:10) 그 날에 ∅ (유대인) 도성 수산에서 도륙한 자의 수효를 왕께 고하니(9:11).

(118)-(121)은 모두 주어가 생략되었다. 구약성경에서 텍스트 생산자가 언급될 때는 일반적으로 주어가 생략된 표현형식을 택하고 있으므로 여기에서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것이다.<sup>12)</sup>

(118)의 ∅ 에는 ‘처녀들이’ 로 복원할 수 있는데, ‘왕에게 나가는 처녀가’ 는 모두 왕후로 간택받기 위해 나가는 처녀들을 가리킨다. (118)의 ∅ 는 선행문에서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 가 이미 제시되었기에 텍스트 수용자는 어렵지 않게 언어적 문맥을 통해 찾을 수 있다. (119)의 주어 자리에는 ‘왕’ 을, (120)의 주어 자리에는 ‘모르드개’ 를, (121)의 주어자리에는 ‘유대인’ 을 쉽게 복원 할 수 있다.

이는 생략된 요소(성분)가 통사적으로 알고 있는 정보이므로 이것이 생략되어도 텍스트 수용자에게는 정보의 전달이나 획득에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서 복원이 더 용이한 것이다.

12) 『전도서』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말씀이라 (The words of Preacher, the son of David, King in Jerusalem), 『잠언』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The proverbs of solomon, the son of David, king of Israel), 『이사야』 “유다왕 웃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이상이라.

(122)[T3-3]전국 각 도에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헤개의 손에 붙여 그 몸을 정결케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2:3) ∅ (아리따운)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수어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열두 달 동안을 행하되 여섯 달은 몰약 기름을 쓰고 여섯 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아갈 때에는 그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하고(2:13).

(122)의 ∅ 표기한 빈 공간은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후로 삼은 ‘아리따운’이라는 수식을 보충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것이 생략된 이유는 텍스트의 경제성 원칙에 근거하여 텍스트를 읽을 때 자질구레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123)[T4-2]그 후에 아하수어로 왕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모든함께 있는 대신 위에 두니(3:1) 대궐 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복이 다 왕의 명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개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3:2) 대궐 문에 있는 왕의 신복이 모르드개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 (대궐 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복이 다 왕의 명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는)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3:3)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개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대인임을 고하였더니 저희가 모르드개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고하였더라(3:4).

(123)중 ∅ 표기한 빈 공간은 응당 ‘대궐 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복이 다 왕의 명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로 보충해야 하며, 수식어가 생략된 이유는 위의 (122)과 같이 텍스트의 경제성 원칙에 근거하여 텍스트로 하여금 너무 자질구레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위에서 생략한 부분은 모두 앞 뒤 문장에서 찾을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텍스트는 연관성을 잃게 되어 의미가 연관되는 하나의 텍스트를 이루기 어렵게 된다.

## 2.6 접속표현(Conjunction expression)

접속표현(conjunction expression)<sup>13)</sup>은 텍스트 세계의 사건과 상황의 관계를 명

13)Beaugrand and Dressler(1981)는 사상(event)이나 상황간의 관계를 명확하게 표시하는 수법으로 접속표현(junctive expression)을 사용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는 네 가지 주요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영어는 연결어미가 없기 때문에 접속사(conjunction)<sup>1)</sup>에만 의존하여 문장을 연결한다(송태운, 2005: 124)

ㄱ. 형태상 분류: a. 대등 접속사(simple conjunction)→and, but, or, for, as if 등. b. 복합 접속사(compound conjunction)→although, because, unless 등. c. 군접속사(group conjunction)→according as, as far as, as soon



확하게 나타내기 위해 텍스트 표층에 사용하는 표지<sup>14)</sup>를 말한다.

한국어의 접속구조는 접속조사와 접속부사의 두 가지 유형을 가진다.

먼저 접속조사는 단어와 단어를 하나로 이어 명사구를 만드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접속부사는 연결어미가 가지고 있지 않는 기능으로 선행 문장뿐만 아니라 선행 문맥의 내용을 전부 포괄 정리하는 기능을 한다. 즉, 접속부사는 단순히 선행 서술구나 문장에 한정되지 않는 넓은 영역을 포괄 대용하는 용법으로 그 의미가 굳어진 채 사용된다. 접속 어미에는 ‘그러나, 그러면, 그래서, 그리고’ 등이 있다.<sup>15)</sup>

이처럼 접속표현은 접속부사와 연결어미에 의해 실현되는데, 본고에서는 연결의 미에 의한 접속 표현에 대해 살펴보겠다.

## 2.6.1 대등접속

대등 접속은 둘 또는 그 이상의 문장들이 서로 대등한 통사적 지위를 가지고 접속되는 것이다. 선행문과 후행문의 의미론적 관계에 따라 병렬관계 접속, 대립관계 접속, 선택 관계 접속, 대조관계 접속 등으로 세분된다(송태윤, 2005: 102). 『에스더』에서는 선택관계 접속과 대립관계 접속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병렬관계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 1) 병렬관계 접속

병렬관계에서 접속문 S1·S2는 대등 관계의 구조를 유지한다. 두 개 혹은 그 이상의 명제를 대등하게 그리고 독립적으로 연결하기 때문에 선행명제(P1)과 후행명제(P2) 사이에는 실현을 위한 상호 전제가 성립되지 않는다(최재희, 1991: 44). 『에스더』에서도 이를 활용하는 텍스트들이 나타난다.

---

as, even if 등. d.상관 접속사(cor-relative conjunction)→as-as. either-or, not only-but also 등.

ㄴ. 기능성 분류: a. 대등 접속사(co-ordinate conjunction)→and, but, or, for 등. b. 종속 접속사(subordinate conjunction)→as, because, if, since, than, that 등.

14) 이은희(1993: 99)는 접속표지 유형으로 ‘접속조사, 접속어미, 접속부사류, 구절적 접속표현’ 등을 설정했다.

15) 한국어의 부사 분류(학교문법): ① 성분부사→ ㄱ. 성분부사 (일반부사, 의상부사, 의태부사) a. 날씨가 **매우** 춥다. b. 파도가 **훨씬** 훨씬 친다. ㄴ. 지시부사 a. **이리** 와라 (장소 지시). b. **모래** 만나자.(시간 지시) c. **그리** 말고.(선행어 지시) ㄷ. 부정부사 a. 그는 **안** 온다. b. 나는 **못** 합니다. ②문장부사→ ㉠양태부사 a. 화자의 태도 표시 부사. (과연, 설미, 제발, 정말, 결코, 모름지기, 응당, 어찌, 아마, 정녕, 하물며 등) ㉡. 접속부사 a. 단어와 단어, 문장과 문장을 이어주는 부사(그리고, 그러나, 그러므로 등)

- (124)[T1-2]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 가는 베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매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깬 땅에 진설하고(1:6)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식양이 각기 다르고 왕의 풍부한 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1:7).
- (125)[T3-2]저의 삼촌의 딸 하닷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고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개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2:7).
- (126)[T6-2]모르드개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 면류관을 쓰고 자색 가는 베 걸옷을 입고 왕의 앞에서 나오니 수산 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8:15).
- (127)[T6-3]이 달 이 날에 유다인 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9:22).

(124)-(127)은 ‘-고’ 접속문이다. S1, S2, Sn 등이 각각 독립적 명제로서 평면적으로 연결됨으로써 선행 문이 후행 문의 실현에 어떤 의존 요구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점 때문에 선택한 것으로 생각된다. 『에스더』에서 나타나는 각 배경장소, 인물요소, 사건 조건 요소, 사건 상태의 섬세한 묘사를 위해서는 [+연결성]의 의미 기능과 [+독립성]의 논리적 관계성을 가지는 대립관계의 ‘-고’ 접속문이 적합했을 것이다.

(124)-(127)은 『에스더』에서 나에 진행한 사건 상태와 동작이 발생한 방식에 대해 생동한 묘사를 하는데 역시 나타나는 각 사건 중에서 발생한 일의 각 조건요소를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기술하기 위하여 문장을 확장 시켰다. (124)는 아하수에로 왕의 호화로운 잔치에 대해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125)는 에스더의 신분과 용모를 묘사했다. (126)-(127)은 텍스트 속에 병렬관계의 ‘-고’ 접속문이 요구되었다.

## 2.6.2 종속 접속

종속 접속은 S1 · S2의 관계가 의미상으로는 의존관계를 유지하고, 통사적으로는 S2에 대하여 S1이 문장부사적 기능을 수행한다. 종속 접속문을 구성하는 접속어미들은 매우 다양한 발달을 보이고 있는데, 그것은 S1 · S2의 두 명제를 다양한 논리적 관계를 연결해야 하는 필요성에 의한 것으로 본다(최재희, 1991: 101). 그리고

그 어미들은 선행문과 후행문 사이의 관계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그럼 아래에 『에스더』에 많이 선택된 종속 접속을 살펴보기로 한다.

### 1) 인과 관계 접속

인과관계란 S1이 S2의 원인이나 이유의 바탕이 되어서 결과를 유도하는 관계를 말한다. 이때 복합명제의 결과가 되는 S2는 S1에 의해서 비로소 성립되는 제약관계를 가진다. 그러므로 인과관계 접속은 ‘원인-결과’ 나 ‘이유-결과’의 관계를 의미론적 특성으로 갖는 접속관계라고 할 수 있다.<sup>16)</sup>

이처럼 인과관계 접속문을 구성하는 접속 어미에는 ‘-(아)서, -니, -니까, -기에, -므로, -느라고’ 등이 있다.

- (128)[T2-1]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면류관을 정제하고 왕의 앞으로 나아오게 하여 그 아리따움을 못 백성과 방백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1:11) 그러나 왕후 와스디가 내시의 전하는 왕명을 좇아오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중심이 불붙는 듯하더라(1:12).
- (129)[T2-2]왕후 와스디가 내시의 전하는 아하수어로 왕명을 좇지 아니하니 규례대로 하면 어떻게 처치할꼬(1:15) 오늘이라도 바사와 메대의 귀부인들이 왕후의 행위를 듣고 왕의 모든 방백에게 그렇게 말하리니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나리이다(1:18).
- (130)[T4-1]에스더가 모르드개의 명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고하지 아니하니 저가 모르드개의 명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좇음이라(2:20).
- (131)[T4-5]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아와 고하니 왕후가 심히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개에게 보내어 그 굵은 베를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개가 받지 아니하는지라(4:4).
- (132)[T5-1]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심히 사랑스러우므로 손에 잡았던 금흠을 그에게 내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흠 끝을 만진지라(5:2) 에스더가 가로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사오니 왕이 선히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임하소서(5:4).
- (133)[T2-1]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면류관을 정제하고 왕의 앞으로 나아오게 하여 그 아리따움을 못 백성과 방백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1:11).
- (134)[T6-3]뜻을 정하고 자기와 자손과 자기와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한 정기에 이 두날을 연하여 지켜 폐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16) 최재희(1991: 101)에서는 ‘이유-결과’ 구문과 ‘원인-결과’ 구문을 구분하여 분석하고 있지만 본고에서는 그 의미 차이를 구분하지 않기로 한다.

(9:27).

(135)[T3-3]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욱 사랑하므로 저가 모든 처녀보다 왕의 앞에 더욱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 머리에 면류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후를 삼은 후에(2:17).

(136)[T5-3] 이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6:1).

(137)[6-3]각 도 모든 관원과 대신과 방백과 왕의 사무를 보는 자들이 모르드개를 두려워하므로 다 유다인을 도우니(9:3).

(138)[T6-4]이 달 이 날에 유다인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9:22).

(128)-(132)는 접속표지 ‘-니’ 에 의해 ‘이유-결과’ 혹은 ‘원인-결과’ 의 의미관계를 가진다. ‘-니’ 접속문에서 S1은 언제나 S2에 어떤 한정성을 부여하는 기능을 수행하므로 서로 강한 의존성을 가지며 진리치에 상관없이 이유에 따른 결과를 주장하는 문장으로 구성 된다.<sup>17)</sup> 따라서 (128)-(132)의 선행절은 아하수어로 왕의 이전 왕후 와스디와 이후 왕후 에스더의 행위(순종-불순종)는 접속표현 ‘-니’ 의 선택이 문법적인 문장이 되며 텍스트 수용자에게 순종과 불순종의 행위를 얻는 결과를 강하게 각인시키고 활성화 시켜준다.

(133)-(134)는 ‘-기에’ 접속표지로 선행절과 후행절을 연결하고 있다. (135)-(137)은 ‘-므로’ 접속표지로 선행절과 후행절을 연결하고 있다. 이들은 모두 ‘이유-결과’ 혹은 ‘원인-결과’ 의 의미관계를 나타낸다. 선행절 주어의 동작이 역사적 사실이므로 진리치를 필요로 하는 접속 구문 표지를 선택하는 것이 문법적인 것이다.

(138)은 접속표지 ‘-(아)서’ 의 의해 ‘원인-결과’ 의 의미관계를 가진다. 유다 민족의 위기와 최종적인 승리는 사실이기에 때문에 접속표지 ‘-(아)서’ 를 통해 진리를 필요로 하는 진술의 명제로써 텍스트 수용자에게 각인시켜 주는 것이다.

이처럼 위에서 살펴본 『에스더』 에 나타난 인과관계 접속은 언급한 선행 발화를 매듭짓고 후행발화에 초점을 맞추는 효과를 나타냄으로써 그 다음의 결과에 대해 궁금증이 집중되는 효과를 얻게 하였다. 따라서 텍스트 수용자의 인지공간을 활성화 시키는 것이다. 또한, 사람들의 행동도 원인과 결과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보편적인 법칙을 설명해 주고 있다.

17) 최재희(1991: 102)에서는 ‘-니’ 와 ‘-니까’ 는 단지 화용성의 차이만 있는 것으로 보고 원인관계가 좀 더 뚜렷이 나타나는 ‘-니까’ 를 독립된 접속어미로 설정했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통사·의미 특성의 차이를 구별하지 않고 ‘-니’ 를 최재희(1991: 102)의 ‘-니까’ 구문에 함께 포함시켰다.

## 2) 조건관계 접속

조건관계란 S1과 S2의 의미론적 관계가 ‘조건-결과’의 관계를 가진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S1은 전제된 조건을 나타내고 S2에서는 그 전제된 조건하에서 ‘진’을 나타내는 관계를 가진다(최재희, 1991: 118). 조건관계 접속문을 구성하는 접속 어미는 ‘-면, -거든, -어야, -ㄴ들, -던들’ 등이 있다.<sup>18)</sup>

- (139)[T2-2]왕후 와스디가 내시의 전하는 아하수어로 왕명을 좇지 아니하니 규례대로 하면 어떻게 처치할꼬(1:15) 아하수어로 왕이 명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하였다 하는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부녀에게 전파되면 저희도 그 남편을 멸시할 것인즉(1:17) 왕의 조서가 이 광대한 전국에 반포되면 귀천을 무론하고 모든 부녀가 그 남편을 존경하리이다(1:20).
- (140)[T4-5]왕의 신복과 왕의 각 도 백성이 다 알거니와 무론 남녀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흠을 내어 밀어야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지가 이미 삼십 일이라 하라(4:11)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삼 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4:16).
- (141)[T5-5]자기의 당한 모든 일을 그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고하매 그 중 지혜로운 자와 그 아내 세레스가 가로되 모르드개가 과연 유다 족속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저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려지리이다(6:13).
- (142)[T5-1]에스더가 가로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사오니 왕이 선히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임하소서(5:4)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선히 여기시거든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나아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5:8).

위의 예들은 접속표지 ‘-면, -거든’을 통해 선행절과 후행절을 ‘조건-결과’의 관계로 연결하고 있다. ‘-거든’은 사실로 예정되어 있는 조건을 나타내며 ‘-면’은 가정된 조건을 나타낸다.

(139)-(141)의 선행절은 가정된 조건을 통해 이전 왕후 와스디의 폐위이유와 새로운 왕후 에스더가 유다민족을 구원하는 과정을 표현하였다. 이는 와스디가 왕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아서 폐위되는 일과 에스더의 유다민족을 구원하는 과정 중에

18) 최재희(1991: 119)에서는 조건관계 접속 표지를 ‘-(으)면, -거든, -아야/-어야’ 등으로 설정한다.

왕궁의 규례를 위반한 행위는 당시 수산왕국 지역의 사회적 관습과 한 왕궁의 규례를 고려한 표현인 것이다.

(142)에서는 ‘에스더’가 왕에게 세 번의 청원에서 ‘-거든’을 통해 와스디와 완전히 다른 대우를 자연스럽게 표현하고 있다. 또 ‘에스더’의 지혜로움도 자연스럽게 표현하고 있다. 또한, 이는 ‘에스더’가 자기 민족을 구원하려는 절박한 심정을 가정적 조건에 담았다고 하겠다.

### 3) 양보관계 접속

양보관계란 종속문에서 S1의 명제 내용을 양보하고서도 S2의 명제 내용을 주장하거나 진술하는 관계를 말한다.

(143)[T5-2]자기의 부성한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방백이나 신복들 보다 높은 것을 다 말하고....(5:11).

(144)[T6-3]곧 함므다다의 손자요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열 아들을 죽였으나 그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9:10).

(145)[T5-1]잔치의 술을 마실 때에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5:6).

(146)[T5-6]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가로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7:2).

위에 (143)-(144)는 접속표지 ‘-(으)나’로써 선행절과 후행절을 양보관계로 이어주고 있고 (145)-(146)에서 접속표지 ‘-(으)≒지라도’로써 선행절과 후행절을 양보관계로 이어주고 있다. (143)-(144)의 문장 결속 표지인 ‘-(으)나’는 대조의 뜻을 표현하는데 텍스트 생산자의 주관 판단이 개입된 화용상의 대조가 아니라 상황 간에 내재해 있는 의미인 것이다.

### 4) 순차관계 접속

순차관계는 행위나 상태의 순서적 연결을 말한다. 시간적으로 S1의 동작 이후에 S2의 동작이 이어지거나, 의미상으로 S1의 상태가 S2에 선행되는 관계의 접속이다(송태윤, 2005: 105).

- (147)[T4-5]에스더가 왕의 명으로 자기에게 근시하는 내시 하 닥을 불러 명하여 모르드개에게 가선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슨 연고인가 알아보라 하매(4:5) 모르드개가 가선 에스더의 명한 대로 다 행하니라(4:17).
- (148)[T5-6]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 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화를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앎이 더라(7:7).
- (149)[T2-1]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면류관을 정제하고 왕의 앞으로 나아오게하여 그 아리따움을 못 백성과 방백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1:11).
- (150)[T4-1]모르드개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고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개의 이름으로 왕에게 고한지라(2:22).

위의 (147)-(148)에서는 접속표지 ‘-(아/어)서’ 통해 선행절과 후행절을 순차관계로 연결하고 있다. 위의 선·후행절 주어의 행위나 동작등이 시간적 순서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149)-(150)에서 접속표지 ‘-고’ 통해 선행절과 후행절을 순차관계로 연결하고 있다.

## 5) 설명관계 접속

설명관계 S1에서 S2의 사건이 일어나는 시간적 배경이나 상황적 배경을 제시하는 관계를 말한다.

- (151)[T5-7]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개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고가 오십 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가로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7:9).

위에(151)에서는 선행절에서 미리 후행절의 사건이 일어나는 배경을 제시하면서 접속표현 ‘-는데’ 로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나무’ 는 십자가 형태로 만들어 하만이 모르드개의 시체를 매달아 만인으로부터 수치와 경멸을 당하도록 하려는 수단을 강조하기 위해 설명 관계의 접속을 선택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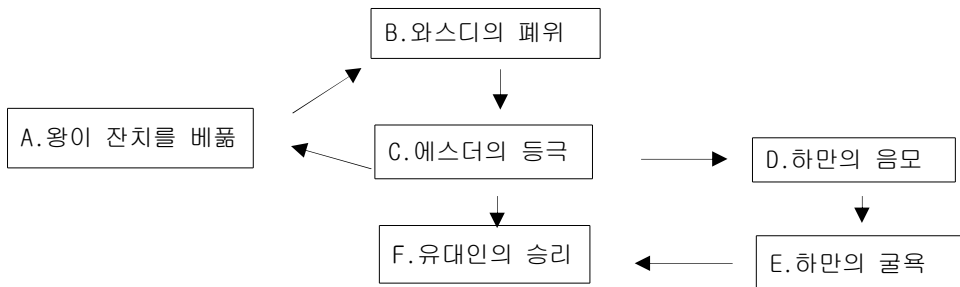
## 제 3 장 『에스더』의 응집성 분석

본 장에서는 『에스더』에 나타나는 여섯 추상적 개념의 응집성 거시구조, 미시구조, 그리고 시간적 인접성과 인과관계로 연결된 사상과 상태들의 가진 전국적 패턴에서의 응집성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 3.1. 거시구조와 미시구조

본 절에서는 『에스더』의 거시구조와 미시구조를 분석하였는데 문장 및 단락 간의 의미관계를 문장과 개념들의 관계구조를 나타내어 거시구조를 먼저 분석하고 이어서 미시구조를 분석하였다. 이는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사건과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고 변화되는가 하는 모습을 사건별로 분석하는 것이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 때문이다.

[그림 4] 거시구조는 본 텍스트가 스키마적인 전국적 패턴을 가지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텍스트 생산자는 사건과 상황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전개시켜 나가고 있다. 이는 구체적으로 아하수어로 왕의 잔치를 베풀음으로부터 시작하여 와스디의 폐위, 에스더의 간택, 유대민족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시간의 순서로 보여 준다.



[그림 4] 『에스더』의 거시구조

(A) 「왕이 잔치를 베풀음」은 아하수어로 왕 통치 당시 페르시아제국의 수산궁이라는 시·공간 배경과 잔치의 구체적인 상황을 나타낸다. (B)는 와스디가 폐위된 원인과 상황, (C)는 와스디가 폐위된 후에 새로 간택된 신 왕후 에스더의 신분,



왕후 간택과 과정을 나타낸다. (D)는 하만과 모르드개간의 갈등 관계와 하만이 유다민족을 말살하려는 음모의 내용, 모르드개와 에스더가 위기에 처한 유다민족을 구하려고 결심하는 장면이 나타난다. (E)는 에스더가 유다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왕에게 청원하는 장면과 에스더가 하만을 위해 잔치를 준비하는 내용이 나타난다. (F)는 하만의 처형과 모르드개의 승리의 파급이 다시 유대인들을 말살하려고 했던 대적들의 멸절과 유대인들의 승리로 이어지고 유대인들의 승리를 기념하는 부림절이 제정됨을 나타낸다.

이를 통하여 볼 때 본 텍스트는 (A)→(B)→(C)→(D)→(E)→(F)의 시간적 구조로 나타난다. 그리고 이 텍스트의 전개과정을 이끌어 가는 요인은 ‘유대민족의 구원은 하나님의 섭리’이며, 그것이 텍스트 전체의 중심으로 작용한다. 다만 [그림 4]에 나타나는 개념들은 거시 개념이므로 이 점이 잘 나타나 있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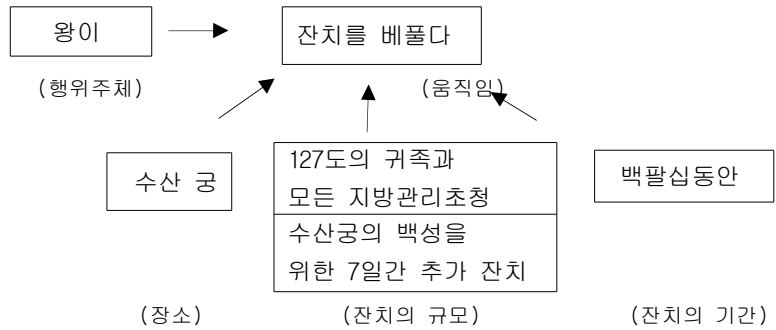
#### (A) 「왕이 잔치를 베풀다」의 응집성(1:1-1:8)

[그림 5](A)의 내용은 아하수어로 왕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을 보여 주기위해 잔치를 배설함에 대한 시·공적인 역사배경과 잔치의 규모, 장식품, 참석 인원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는 내용이다. (A)에서 말하고자 한 거시적 개념은 「아하수어로 왕이 잔치를 베풀다」이다. 여기에서 ‘왕’은 행위주체에 해당하고 ‘잔치를 베풀다’는 움직임에 해당하므로 [그림 5]와 같이 표시할 수 있다.



[그림 5](A) 「왕이 잔치를 베풀다」의 거시구조

위의 「왕이 잔치를 베풀다」의 미시구조는 행위주체가 움직이는 ‘장소’와 ‘잔치의 규모’와 ‘잔치의 기간’이 첨가되는데 이를 거시구조와 함께 나타내면 [그림 6]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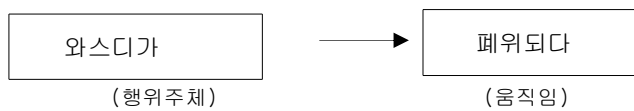


[그림 6](A) 「왕이 잔치를 베푼다」의 미시구조

이상의 [그림 5]와 [그림 6]을 통하여 볼 수 있듯이 (A)의 궁극적 거시개념은 「아하수어로 왕이 잔치를 베푼다」이지만 [그림 4](A)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잔치’는 핵심사건이 된다. 왜냐하면 이는 이 텍스트 전체에서 아하수어로 왕의 재부(財富)와 잔치의 규모를 나타내는 데 핵심적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B) 「와스디의 폐위」의 응집성(1:9-1: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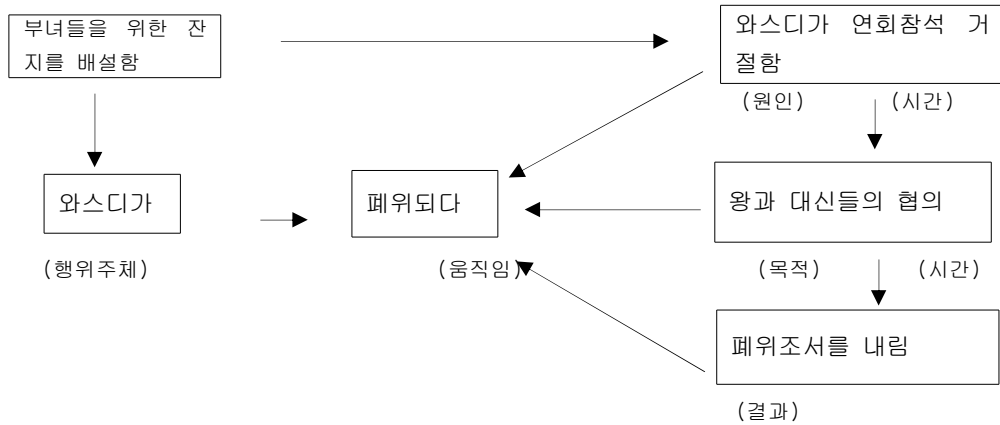
(B)의 내용은 와스디 왕후의 폐위된 원인과 폐위 과정이다. 여기에서 ‘와스디’는 행위주체에 해당하고 ‘폐위됨’은 동작에 해당하므로 [그림 7]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그림 7](B) 「와스디의 폐위」의 거시구조

위의 텍스트에서는 수산궁의 부녀들을 위한 잔치를 배설한 왕후 와스디가 아하

수에로 왕의 명령을 거절함으로 왕을 화나게 한 결과, 그녀는 폐위된다. 그리고 왕이 와스디의 폐위여부에 관한 대신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폐위조서를 내림으로 결국 와스디는 폐위되었다. [그림 7]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나타내면 [그림 8]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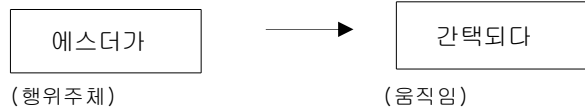


[그림 8](B) 「와스디의 폐위」의 미시구조

이상에서 와스디가 폐위된 과정이 잘 나타나고 있다. 와스디가 왕후로서 예쁘고 고귀하였지만 왕의 명령을 거절함으로서 결국은 왕후의 자리에서 폐위되었다. 이로써 새로운 왕후를 간택의 필요성과 함께 에스더의 등장을 예고해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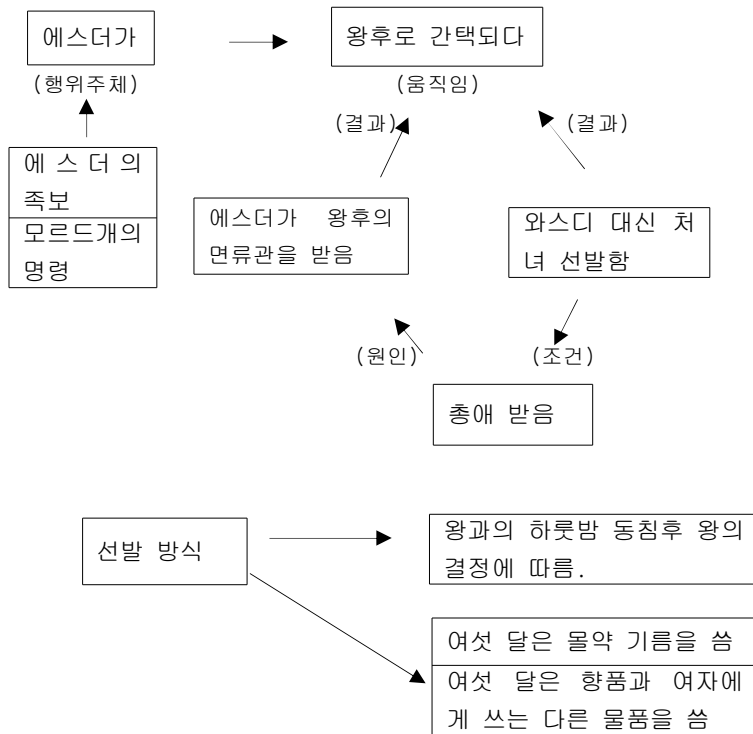
### (C) 「에스더의 등극」의 응집성(2:1-2:20)

아래 [그림 9](C)부분의 내용은 에스더가 왕후로 간택됨을 통해서 본 텍스트의 제어 중심으로 적용한다. (C)부분에서 말하고자 하는 궁극적 거시개념은 ‘에스더가 왕후로 간택됨’이다. 여기서 에스더는 ‘행위주체’에 해당하고 간택됨은 ‘움직임’에 해당하므로 [그림 9]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그림 9](C) 「에스더의 등극」의 거시구조

이제 [그림 9]거시구조의 내용을 보다 구체적 설명하면 [그림 10]과 같다. 와스디가 폐위된 후 왕은 새 왕후를 간택하라는 신하들의 제안을 받는다. 그리하여 수산 궁에서 새 왕후를 선발하는 행사를 거행하였다. 수산궁의 모든 처녀들에게 왕후 선발 방식을 소개하고 이때 에스더도 삼촌 모르드개의 소개로 왕궁에 들어가게 된다. 에스더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유대인 고아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선발 과정 중에 다른 처녀들보다 왕의 내시(혜개)의 은총과 왕의 총애를 받아 극적으로 왕후로 선발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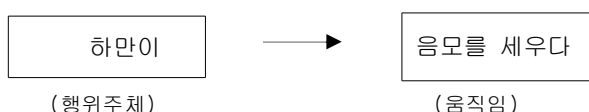
[그림 10](C) 「에스더의 등극」의 미시구조

위의 [그림 10](C)는 와스디가 폐위된 후 에스더가 새 왕후로 선발되는 과정을 주제로 풀어나가고 있다. 그리고 이 과정가운데 놀랍게도 수많은 처녀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유대인 여자 에스더가 선택되었다.

앞서 말했듯이 『에스더』서의 전체 텍스트의 중심 내용은 「유대민족의 구원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에스더』에서는 ‘하나님’이란 어사가 한 번도 나타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민족의 진정한 구원자는 에스더나 모르드개가 아니라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심을 암시하는 것이다. 이는 앞에서 언급한 추상적 개념인 유대민족의 구원과 관련된 「하나님의 섭리」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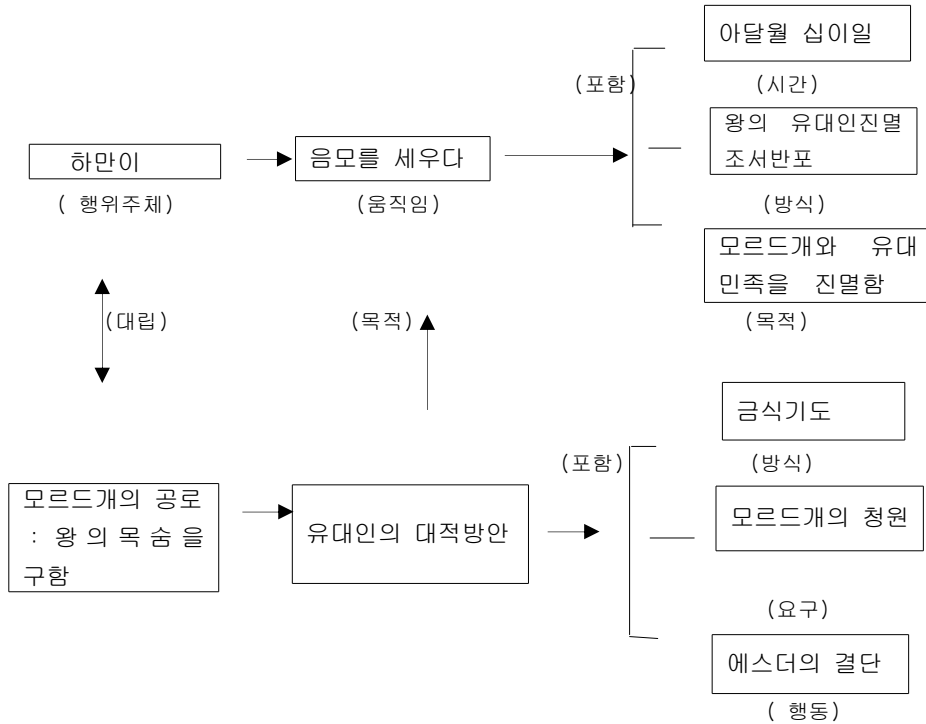
#### (D) 「하만의 음모」의 응집성(2:19-4:17)

(D)는 하만과 모르드개 간의 갈등 관계에 대한 섬세하고 내면적인 묘사와 이에 대한 모르드개와 에스더의 대책에 대한 내용이다. 이 부분은 유대인의 대적(아각 사람-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이 유대인을 멸절시킬 음모를 꾀하는 장면과 하만의 흥계를 알게 된 모르드개와 에스더가 일사각오(죽으면 죽으리라)의 신앙으로 아하수에로 왕 앞에 나아가 유대민족이 처한 위기상황을 극복하기로 결심하는 것이 중심내용이다. 이는 [그림 1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그림 11](D) 「하만의 음모」의 거시구조

위의 [그림 11]거시구조 「하만의 음모」의 상세한 내용은 다음 [그림 12]에 잘 나타난다.



[그림 12](0) 「하만의 음모」의 미시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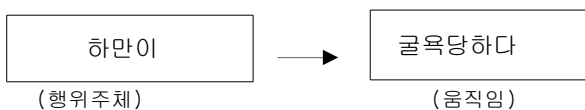
이상에서는 하만의 유대민족을 멸절하려는 음모와 대조적으로 앞에서 언급한 추상적 개념인 「하나님의 섭리」 즉, 하나님이 유대민족을 구하기 위하여 은연중에 모르드개와 에스더를 준비시키는 대적 방안이 큰 대비를 형성한다. 이러한 표현방식은 의미상승이 주는 효과로 인하여 수용자들의 흥미를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할 수 있다.

(E) 「하만의 굴욕」의 응집성(5:1-8:2)

아래 (E)의 내용은 에스더가 왕에게 유대민족을 구원하기 위해 청원한 두 번의 잔치를 통해 하만의 음모를 폭로함으로써 하만이 굴욕을 당하고 모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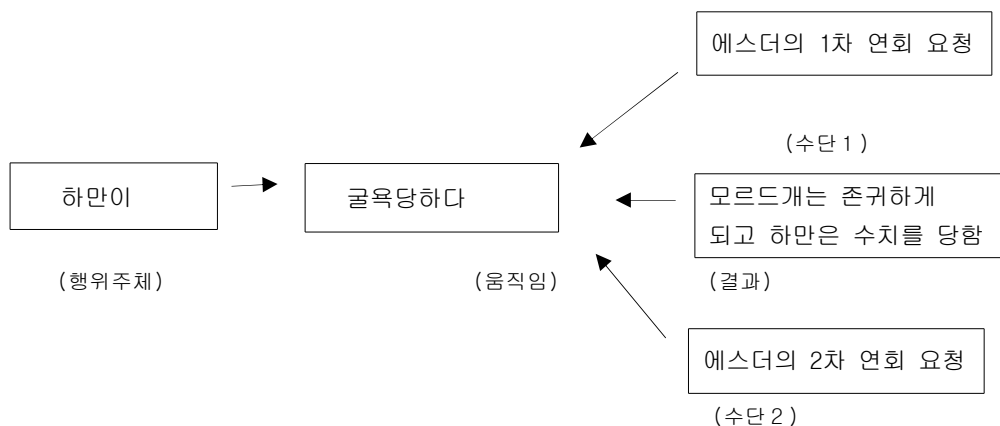
드개가 그가 누렸던 권세와 영광을 차지하는 것을 포함한다.

그러나 일단 (E)에서 말하고자 한 궁극적 거시 개념은 「하만이 굴욕당하다」이다. 여기에서 ‘하만’은 행위주체에 해당하고, ‘굴욕당하다’는 움직임에 해당하므로 다음 [그림 13]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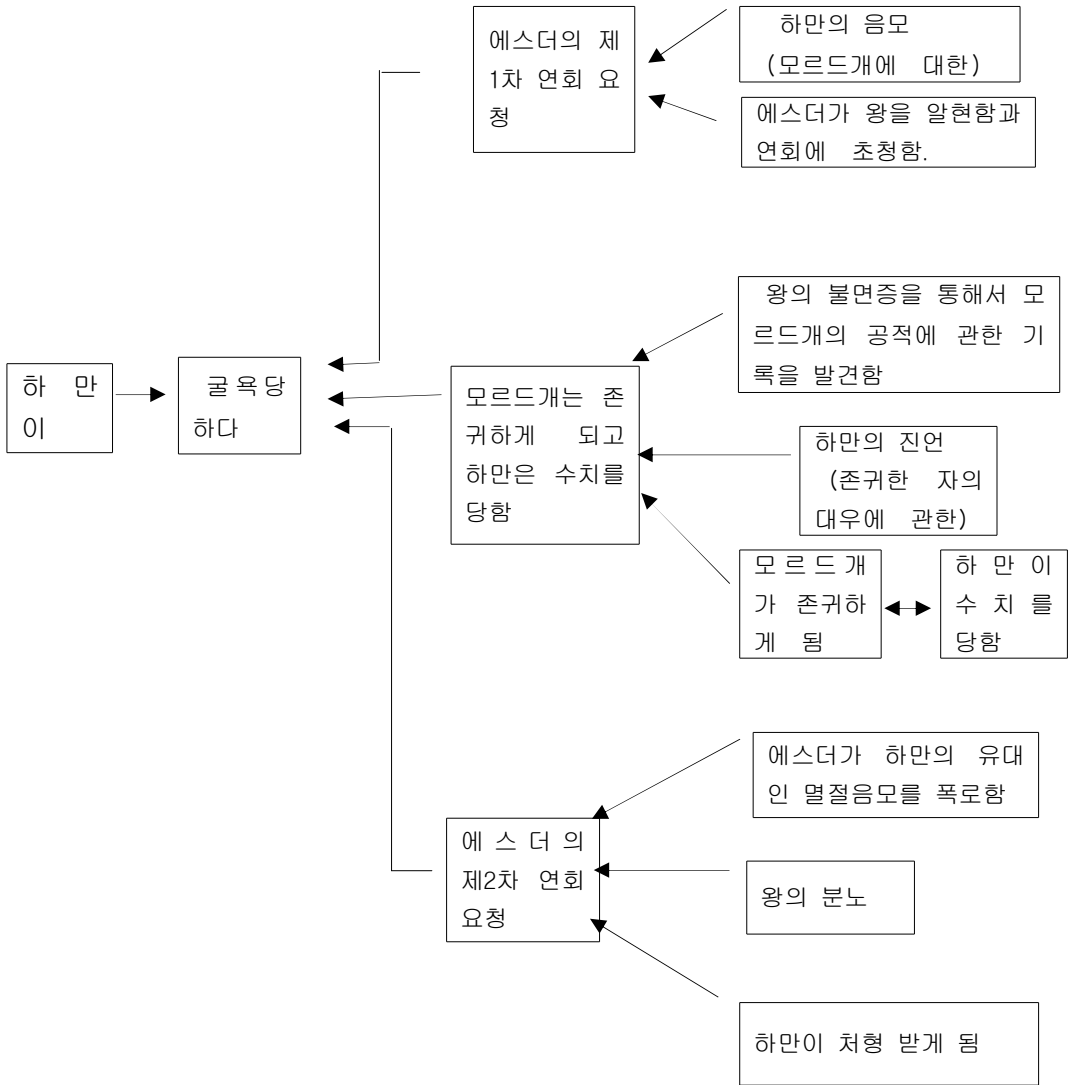
[그림 13](E) 「하만의 굴욕」의 거시구조

위의 [그림 13]거시구조의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나타내면 다음 [그림 14]가 된다.



[그림 14](E) 「하만의 굴욕」의 미시구조 1

위의 [그림 14](E)의 텍스트는 세 개의 사건을 계기로 하만의 굴욕을 보여준다. ①에스더가 왕을 알현하고 1차 연회로 초대함, ②모르드개는 존귀하게 되고 하만은 수치를 당함, ③에스더의 2차 연회 요청함이 그것이다.



[그림 15](E) 「하만의 굴욕」의 미시구조 2

이상에서는 에스더의 지혜롭고 용기 있는 간청과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통해 하만의 음모를 무너뜨리는 과정이 잘 나타나고 있다. 유대민족이 멸절의 위기에 처하여, 왕궁의 규례가 엄격하고 와스디가 폐위되는 선례가 있었지만 유대인과 에스더에게는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된다. 그것은 유대민족을 멸절하고 높은 장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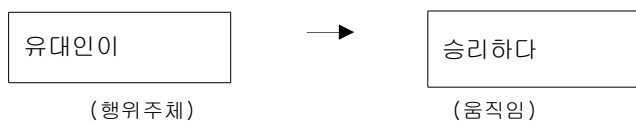


에 모르드개의 목을 달겠다던 하만의 흥계가 이루어지기 바로 직전이었다. 이러한 위기의 상황에, 본 텍스트의 핵심은 바로 「선민 유대민족의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궁극적인 추상개념이었기에, 이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오랫동안 왕의 부름을 받지 못한 에스더가 다시 왕의 총애를 받게 되고 과거 모르드개가 왕에 대한 암살 음모를 폭로한 공헌이 새삼 밝혀지면서 상황은 급전환되었다. 그리고 결국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가 하만의 흥계를 폭로함으로 하만이 모르드개의 목을 달고자 세워두었던 장대에 그 자신의 목이 달리게 되고 모르드개는 도리어 하만이 누렸던 권세와 영광을 차지하게 된 것이다.

### (F) 「유대인의 승리」의 응집성(8:3-10:3)

아래 [그림 16](F)의 내용은 하만의 처형과 모르드개의 승리의 파급효과는 다시 유대인들을 멸하려 했던 대적들의 멸절과 유대인들의 승리로 이어진다. 더 나아가 본문에서는 유대인들을 두려워하게 된 많은 이방인들의 개종(改宗)과 유대인들의 승리를 기념하는 부림절을 제정하고 그 절기를 자손 대대로 지키도록 모르드개가 페르시아 제국의 모든 유대백성들에게 명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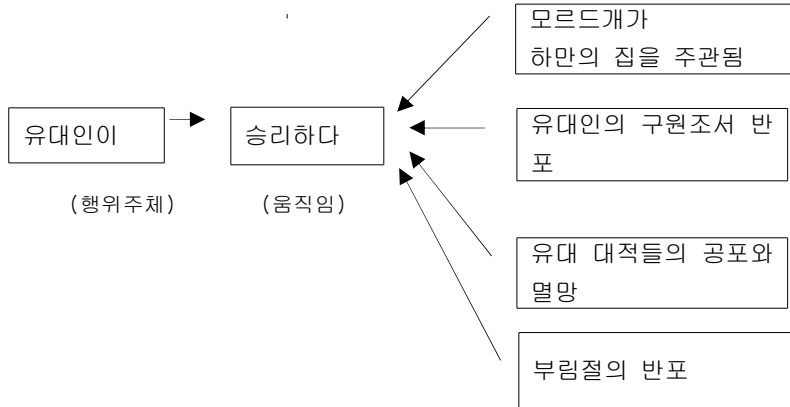
먼저 (F)에서 말하고자하는 궁극적 거시개념은 「유대인이 승리하다」가 된다. 여기서 「유대인」은 행위주체에 해당되고, 「승리하다」는 움직임에 해당하므로 아래 [그림 16]과 같이 표시 할 수 있다.



[그림 16](F) 「유대인의 승리」의 거시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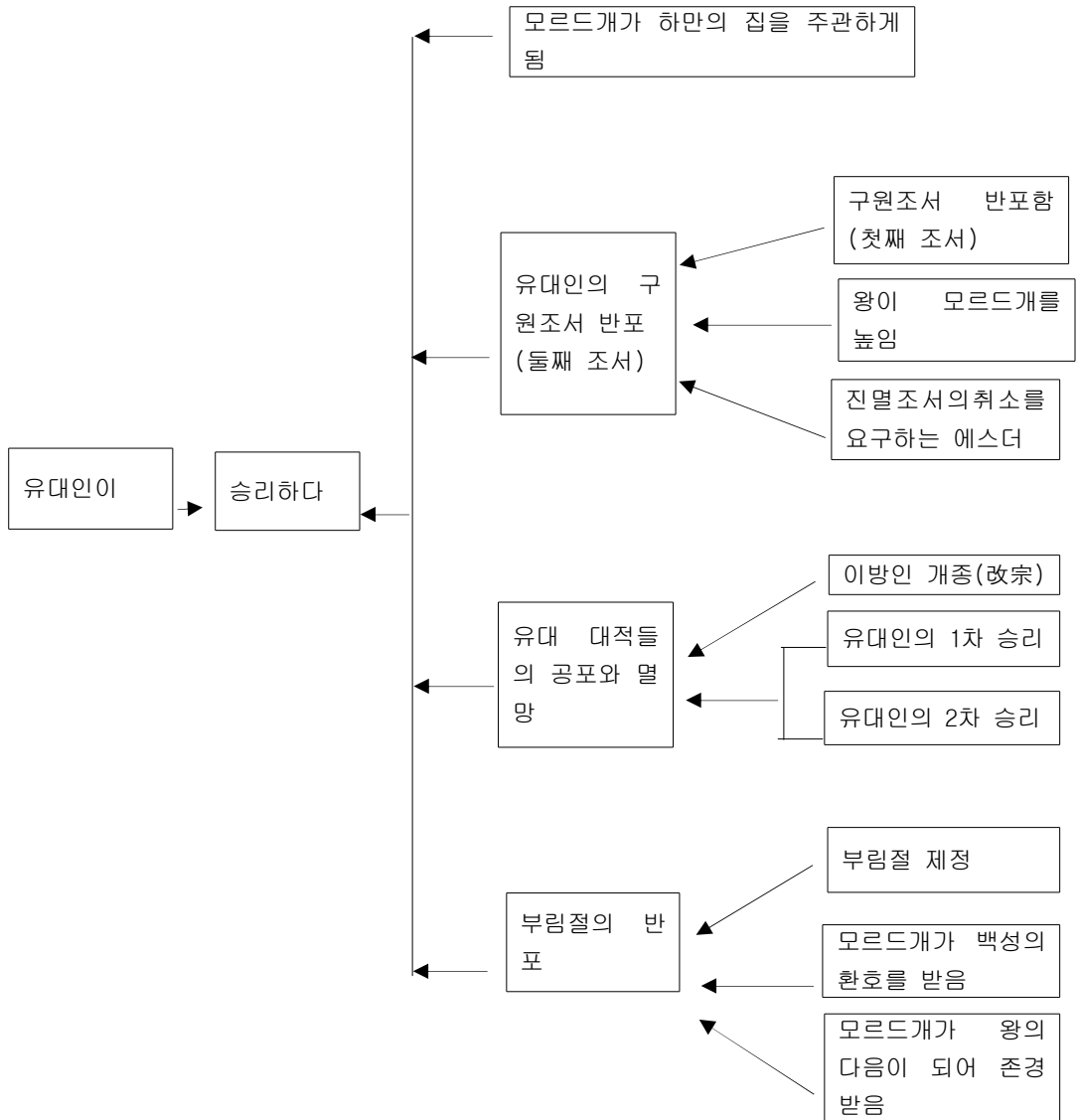
위의 「그림 16」거시구조의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나타내면 다음 [그림 17]이 된다. 이하의 내용에서는 아하수에로 왕의 조치로 모르드개가 도리어 하만의 집을 주관하게 된다. 그리고 에스더의 눈물의 간청으로 하만이 내린 유대인 진멸의 조서를 취소하고 도리어 유대인 구원을 위한 조서를 전국에 반포하게 되었다. 이로써 유대인의 대적들이 도리어 공포가운데 멸절당

하고 유대인은 큰 영광과 기쁨과 존귀함 가운데 구원을 얻게 되고 그 기념으로 부림절을 제정, 반포하게 된다.



[그림 17] (F) 「유대인의 승리」의 미시구조 1

위의 [그림 17] (F) 「유대인이 승리하다」의 거시개념으로 나타낸 것인데, 이것을 다시 구체적 개념으로 바꾸면 다음 [그림 18]과 같다.



[그림 18 ](F) 「유대인의 승리」의 미시구조 2

결과적으로 본 텍스트 생산자는 모르드개가 많은 공적을 세움으로 아하수에로 왕 다음으로 높은 지위에 오르게 되고 페르시아의 모든 백성들이 그를 사랑한 사실로 대단원을 장식하고 있다. 이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 유대인의 승리

와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발견하게 된다. 다시 한 번 『에스더』의 핵심적 의미인 ‘유대인의 승리’ 즉,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강조되고 있음을 깨닫게 된다.

이상, 응집성의 망에서 밝혀진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A)아하수어로 왕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을 만민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큰 잔치를 베푼다. (B)왕후 와스디가 왕의 명령을 거절함으로 왕후의 자리에서 폐위를 당하게 된다. (C)폐후 와스디를 대신하여 유대 여자 에스더가 새 왕후로 간택되게 된다. (D)에스더의 삼촌 모르드개와 갈등관계에 있는 하만이 모르드개를 나무에 달고 모르드개가 속한 유대민족까지 멸살시키려는 음모를 세운다. (E)에스더가 지혜롭고 용감하게 하만의 음모를 무너뜨린다. (F)유대민족은 에스더를 통해 대적들을 진멸하고 구원을 받았다.

이러한 개념들이 [그림 4]와 다양한 관계를 이루며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위의 응집성 분석을 통하여 확인 할 수 있었다.

### 3.2 전국적 패턴에서의 응집성

전국적 패턴은 잘 통합된 지식의 덩어리를 의미한다. 전국적 패턴의 사용은 지역적인 국지적 패턴(局地的: Local patterns)을 사용할 때 겪는 복잡성을 격감시킬 수 있으며, 특정 시점에서 훨씬 더 많은 정보를 활동 기억장치에 보유할 수 있게 한다(이석규 외, 2001: 45).

전국적 패턴 스키마(Schemas)는 시간적 인접성과 인과관계로 연결된 사상(事象)과 상태들이 일정한 순서로 배열된 전국적 패턴이다.<sup>19)</sup>

이상, 『에스더』에 나타나는 텍스트 구조 속에 일정순서로 배열된 인지적 요소들이 각기 응집성을 가지고 나타나 수용자의 인지적 패턴을 활성화시키는 기능을 하고 있다. 본고는 전국적 패턴의 스키마에 의하여 분석하겠다. 따라서 텍스트 생산자는 텍스트 구조 속에 시간적 인접성과 인과관계로 연결된 사상과 상태들이 일정한 순서로 배열되고 있다. 이러한 예들은 다음과 같다.

19) 여기서 예를 들으면 ‘운전 스키마’의 경우에는 ‘자동차 문을 연다’, ‘의자의 앉는다’, ‘안전벨트를 맨다’, ‘시동을 건다’, ‘기어를 변속한다’, ‘기속기 페달을 밟는다’의 순서로 배열되어 있는 지식의 덩어리를 말한다.

(A)왕이 잔치를 베풀(1:1-1:8)

[1:1]이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된 것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 구스까지 일백이십칠 도를 치리하는 왕이라 [1:2]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수산 궁에서 즉위하고 [1:3]위에 있는 지 삼 년에 그 모든 방백과 신복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니 바사 와 메대의 장수와 각 도의 귀족과 방백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1:4]왕이 여러 날 곧 일백팔십일 동안에 그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赫赫함을 나타 내니라 [1:5] 이 날이 다하매 왕이 또 도성 수산 대소 인민을 위하여 왕궁 후원 뜰에서 칠 일 동안 잔치를 베풀새 [1:6]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 가는 베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매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깎 땅에 진설하고 [1:7] 금 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식양이 각기 다르고 왕의 풍부한 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1:8]마시는 것도 규모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궁내 관리에게 명하여 각 사람으로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위의 (A)는 전체 이야기의 시작이다. 텍스트 생산자는 [1:1]에서 『에스더』가 발생한 시간, ‘아하수에로 왕 때’와 발생한 장소, ‘인도로 구스까지 일백이십칠도’를 다스렸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 광대한 지역의 수산이라는 도성[1:2]의 왕궁, 수산궁에서 [1:3]왕이 자기 나라의 부함과 위엄을 보여주기 위해서 수산궁에서[1:4] 일백팔십일 동안에 잔치를 베풀었다. [1:5] ‘이 날’은 일백팔십일 중에 마지막 날을 말한다. [1:6]-[1:8]은 잔치의 규모, 잔치의 장식물 등에 대한 기록이다. (A)의 구조 속에서 아하수에로 왕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을 만민들이 보여주는 것과 일백팔십일 동안 잔치를 베풀 것이 인과 관계를 중심으로 시간의 순서에 따라 연결되어 있다. 그러므로 아하수에로 왕이 왕국의 수산궁이라는 왕궁과 잔치를 베풀 것을 중심으로 전개 될 것이라는 가설이 가능해진다.

(B) 와스디의 폐위(1:9-1:22)

[1:9]왕후 와스디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부녀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니라  
[1:10]제칠일에 왕이 주흥이 일어나서 어전 내시 므후만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 일곱 사람을 명하여.

[1:2]아하수에로 왕이 잔치를 베풀 수산궁에서 [1:9]왕후 와스디도 부녀들을 위한 잔치를 베풀고 있었다. [1:10]왕이 주흥이 일어나는 상태에서 왕후의 미모를 대신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시간 와스디의 잔치 일을 기록하고 있다.

**[1:18]**오늘이라도 바사와 메대의 귀부인들이 왕후의 행위를 듣고 왕의 모든 방백에게 그렇게 말하리니 열사와 분노가 많이 일어나리이다 .

이어서[1:11]-[1:17]은 시간의 연속성을 갖고 순서에 따라 배열되어 있다. [1:18]의 ‘오늘’은 왕이 왕후에게 왕후의 미모를 대신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출현하라고 명령하는 날과 [1:10] ‘제칠일’이 같은 날이다. 또한 왕후 와스디가 왕의 명령을 거절하고 폐위를 초래한 날을 말한다. 따라서 [1:10]과 [1:18]은 사상과 시간적 인접성이 순서에 따라 배열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B)의 구조 속에서는 왕후가 왕의 명령을 거절하는 것과 폐위가 초래되는 것이 인과관계를 중심으로 시간 순서에 따라 배열되어 있다.

### [C]에스더의 등극(2:1-2:20)

**[2:1]**그 후에 아하수어로 왕의 노가 그치매 와스디와 그의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2:2]**왕의 사신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2:1]의 ‘그 후’는 와스디 왕후가 폐위 된 후의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1:10], [1:18]과 [2:1]은 사상과 시간적 인접성의 순서를 따라 배열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2:1]의 왕이 와스디를 폐위시킨 것에 대해 후회하는 것과 [2:2]아리따운 처녀를 선발하려는 것이 인과 관계를 이룬다.

**[2:19]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에는** 모르드개가 **대궐 문에** 앉았더라 **[2:20]**에스더가 모르드개의 명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고하지 아니하니 저가 모르드개의 명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좃음이더라. **[2:21]모르드개가 대궐 문에 앉았을 때**에 문 지키 왕의 내시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아하수어로 왕을 원한하여 모살하려 하거늘 **[2:22]모르드개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고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개의 이름으로 왕에게 고한지라 **[2:23]**사실하여 실정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의 앞에서 궁중 일기에 기록하니라.

이어서[2:3]-[2:18]은 사건의 장면과 시간적 인접성을 갖고 순서에 따라 배열되어 있다. [2:19]의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는 모르드개[2:21]가 대궐문에 있을 때를 말한다. 모르드개가 에스더를 지키기 위해 대궐문에서 날마다 앉아 있는 장면은 대궐문을 지키는 왕의 내시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왕을 살해하려는 음모가 발견되었고 [2:22]왕후로 선택된 에스더를 통하여 왕에게 고하여 [2:23]궁중 일기

에 기록하게 되는 것은 인과관계를 중심으로 시간의 순서에 따라 연결되어 있다.

**[3:1]**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모든 함께 있는 대신 위에 두니 **[3:2]**대궐 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복이 다 왕의 명대로 하만에게 **꿨어 절하되 모르드개는 꿨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3:3]** 대궐 문에 있는 왕의 신복이 모르드개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3:4]**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개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대인임을 고하였더니 저희가 모르드개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고하였더라 **[3:5]**하만이 모르드개가 꿨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심히 노하더니 **[3:6]**저희가 모르드개의 민족을 하만에게 고한 고로 **하만이 모르드개만 죽이는 것이** 경하다 하고 아하수에로의 온나라에 있는 유대인 곧 모르드개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3:7]**아하수에로 왕 **십이년 정월 곧 니산월**에 우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십이월 곧 아달월을 얻은지라.

[3:1]의 ‘그 후에’는 모르드개가 고발한 공로를 궁중일기에 기록하게 된 후를 말한다. 따라서 [3:1]과 [2:23]사상과 시간적 인접성 순서에 따라 배열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3:2]대궐문에 있는 모르드개가 하만에게 꿨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과 [3:6]하만이 모르드개만 죽이는 것과 인과관계를 중심으로 시간의 순서에 따라 연결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 텍스트의 수용자는 이하의 텍스트가 하만의 도륙음모를 당하는 모르드개와 자기 민족 유대민족의 구원과정을 중심으로 전개 될 것이라는 가설 설정이 가능해진다. 하만의 음모를 실행하는 시간과 [3:7]아달월을 같은 시간으로 선정하고 있다.

**[3:13]**이 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부쳐 왕의 각 도에 보내니 십이월 곧 **아달월 십삼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대인을 노소나 어린아이나 부녀를 무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 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3:14]**이 명령을 각 도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 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3:13]**역졸이 왕의 명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이어서 [3:8]-[3:12]는 사상과 시간의 연속성을 갖고 순서에 따라 배열되어 있다. [3:13]-[3:15]유대인을 진멸하는 날이 아달월십삼일 하루는 [3:14]의 ‘그날’과 같은 날을 말한다. 따라서 [3:13]-[3:15]는 사상과 시간적 인접성이 순서를 따라 배열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D). 하만의 음모(2:9-4:17)

**[4:1]**모르드개가 이 모든 일을 알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베를 입으며 재를 무릅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4:2]**대궐 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를 입은 자는 대궐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4:3]**왕의 조명이 각 도에 이르매 유대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를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 하더라.

[4:1]진멸조서를 받고 통곡하는 모르드개가 [4:2]대궐문 앞에서 굵은 베를 입는 것은 [4:4]에스더의 내시를 통하여 에스더가 유대인의 진멸조서 반포 알게 되었고 에스더가 유대인들을 위해 구원하는 결단을 시작하게 되는다. [4:3]은 에스더의 수용자에게 유대인들이 고난당할 때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금식법을 보여준다.

**[4:11]**왕의 신복과 왕의 각 도 백성이 다 알거니와 무론 남녀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화를 내어 밀어야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지가 이미 삼십 일이라하라 **[4:12]**그가 에스더의 말로 모르드개에게 고하매 **[4:13]**모르드개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대인 중에 홀로 면하리라 생각지 말라 **[4:14]**이 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대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놓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4:15]**에스더가 명하여 모르드개에게 회답하되 **[4:16]**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대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삼 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4:17]**모르드개가 가서 에스더의 명한 대로 다 행하니라.

[4:4]-[4:10]은 시간의 연속성 순서에 따라 배열되어 있다. 유대인을 구하려는 에스더가 [4:11]30일 동안 왕의 부름을 받지 못해 왕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모르드개가 [4:16]수산이라는 곳에서 모든 유대인들과 함께 삼일을 금식한 다음, 에스더가 죽음을 무릅쓰고 왕 앞에 나아가는 것이 인과관계를 중심으로 시간의 순서에 따라 연결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 텍스트의 수용자가 다음의 텍스트가 에스더가 왕 앞에서 행하려는 행동을 중심으로 전개될 것이라는 가설 설정이 가능해진다.



(E). 하만의 굴욕(5:1-8:2)

**[5:1]제 삼 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 문을 대하여 보좌에 앉았다가 **[5:2]**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심히 사랑스러우므로 손에 잡았던 금흠을 그에게 내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흠 끝을 만진지라 **[5:3]**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5:4]**에스더가 가로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사오니 왕이 선히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임하소서...**[5:8]**시행하시기를 선히 여기시거든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나아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5:9]이 날**에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모르드개가 대궐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심히 노하나.

[5:1]제삼일은 에스더가 모르드개를 통하여 수산에 있는 유대인들을 금식시키는 삼일을 말한다. 따라서 [5:1]과 [4:16]은 사상과 시간적 인접성이 순서를 따라 배열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왕의 은총을 얻은 에스더가 [5:4] ‘오늘’에 하만의 음모를 막기 위해서 왕에게 잔치에 참석할 것을 요구한다. [5:8] ‘내일’에 잔치를 다시 베풀어서 왕과 하만을 재요청을 했다. 그것은 하만이 재요청을 받기 때문에 [5:9]에 기쁘게 되는 이유가 된다. [5:9]의 ‘이날’은 [5:8]의 ‘내일’의 전날을 말한다. 따라서 [5:8]과 [5:9]는 인과관계를 이루고 사상과 시간의 인접성 순서에 따라 배열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5:14]**그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가 이르되 **오십 규빗이나 높은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개를 그 나무에 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나아가소서 하만이 그 말을 선히 여기고 명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이어서 [5:10]-[5:13]은 시간의 연속성을 갖고 순서에 따라 배열되어 있다. [5:14]하만이 모르드개를 죽이기 위하여 나무를 세우는 이유는 모르드개가 [5:9]하만을 만날 때마다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5:9]과 [5:14]는 인과관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6:1]이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6:1]의 ‘이 밤에’는 에스더가 왕과 하만을 첫번째 잔치에 요청한 [5:14] ‘오늘’과 둘째 잔치에 요청한 [5:8] ‘내일’ 사이의 밤을 말한다. 에스더가 유대인을

구할 계획 중 두 번 잔치의 시간 사이에 왕이 [6:2]역대일기를 읽게 되고 모르드개가 [2:21][2:22]왕에게 왕을 모해하려는 자를 고발한 공로를 다시 발견하고 주목하였기 때문에 모르드개가 [6:3]높임을 받게 되는 이유가 된다. 따라서 [6:1]과 [2:21]-[2:22]는 인과관계를 중심으로 시간의 순서에 따라 연결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 텍스트의 수용자는 이하의 텍스트가 왕이 갑자기 밤에 불면증이 일어나서 역대일기를 읽게 된 과정을 추측할 수 있다. 이와 [5:8] ‘내일’의 둘째 잔치간에 특별한 상관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의문과 에스더가 둘째 잔치를 베푸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밝혔다. 따라서 텍스트 수용자에게 ‘잔치를 베풀’을 중심으로 전개될 것이라는 가설 설정이 가능해진다.

[7:1]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나아가니라 [7:2]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가로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7:3]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선히 여기시거든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7:4]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 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7:5]아하수어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일러 가로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7:6]에스더가 가로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7:1]왕이 하만과 에스더의 잔치에 나아가는 [7:2] ‘이 둘째날’은 [5:8] ‘내일’과 같은 날이다. 즉, [5:4]첫째 잔치가 끝난 그날 밤에 왕이 역대일기를 읽었고 모르드개의 공로를 다시 발견하게 되었다. [6:1]이 밤이 지난 바로 다음날을 의미한다. 왕이 둘째 잔치에서 에스더의 [7:3]요구를 다시 물을 때 에스더가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민족을 내게 주소서’라는 요구를 말해주었다. 왕이 [7:5] ‘누구’냐고 물을 때 에스더가 [7:6]하만의 음모를 왕에게 고발하였다. 따라서 [7:1]-[7:6]은 사건과 시간의 인접성 순서에 따라 배열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7:10]**모르드개를 달고자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8:1]**당일**에 아하수어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개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고한 고로 모르드개가 왕의 앞에 나오니.

다음 [7:7]-[7:9]는 시간적 연속성의 순서에 따라 배열되어 있다. 왕이 하만을 [7:10]하만이 모르드개를 죽이기 위해 세운 나무에 매달게 되는 것과 모르드개가 왕 앞에서 높아지게 되는 것이 급 전환 효과로 나타나고 왕이 에스더가 베푸는 두 번의 잔치사이에 [6:1] ‘이 밤’ 이라는 표현을 텍스트 생산자가 곧이 삼입시켰던 것은 폭군의 불면증마저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 동원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려 함이었다. 이는 아무리 우연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하고 있음을 예시하고 있다(그랜드 종합주석, 1996). [8:1] ‘당일’ 은 둘째 잔치를 베푸는 ‘내일’ 을 말한다.

**[8:9]** 그때 시완월 곧 삼월 이십삼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고 무릇 모르드개의 시키는 대로조서를 써서 인도로부터 구스까지의 일백이십칠 도 유대인과 대신과 방백과 관원에게 전할 새 각 도의 문자와 각 민족의 방언과 유대인의 문자와 방언대로 쓰되.

이전의 [8:2]-[8:8]은 시간적 순서에 따라 배열되어 있다. 그리고 [8:9]의 시완월은 왕이 유대인들에게 하만의 족속을 진멸시켜줄 시간으로 [3:3]하만이 유대인들을 도륙하려는 월과 같은 달(시간적 배경)을 말한다.

이는 (E)의 구조 속에서 유대인들을 진멸하려는 하만과 왕후가 된 유대 여자 에스더를 통해서 진멸하게 되었다. 에스더가 두 번의 잔치를 베푸는 이유와 목적이 하만의 음모가 왕에게 고발되기까지 달성하게 된다. 에스더가 둘째 잔치를 통하여 수용자에게 이 사건은 분명 우연이 일어난 일이 아니고 앞에서 언급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중점을 암시하고 있다.

#### (F)유대인의 승리(5:1-8:2)

**[9:1]** 아달월 곧 십이월 십삼일은 왕의 조명을 행하게 된 날이라 유대인의 대적이 저희를 제어하기를 바랐더니 유대인이 도리어 자기를 마워하는 자를 제어하게 된 그 날에...

[9:1]은 유대인들이 원수 하만의 족속의 진멸을 진행한 아달월, 십이월 십삼일과 [8:9]왕이 유대인들의 원수(하만의 족속)를 진멸시키는 날을 말한다. 따라서 [9:1]과 [8:9]은 사건과 시간적 인접성의 순서에 따라 배열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9:11]그 날에 도성 수산에서 도륙한 자의 수효를 왕께 고하니.

이전의 [9:2]-[9:10]은 시간적 연속성의 순서에 따라 배열되어 있다. [9:11]의 ‘그날’은 [9:11]유대인들이 하만의 족속을 진멸하는 날을 말한다.

[9:15]아달월 십사일에도 수산에 있는 유대인이 모여 또 삼백 인을 수산에서 도륙하되 그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9:16]왕의 각 도에 있는 다른 유대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대적들에게서 벗어나며 자기를 미워하는 자 칠만 오천 인을 도륙하되 그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 하였더라 [9:17]아달월 십삼일에 그 일을 행하였고 십사일에 쉬며 그 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겼고 [9:18]수산에 거한 유대인은 십삼일과 십사일에 모였고 십오일에 쉬며 이 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긴지라.

이전의 [9:12]-[9:14]는 시간적 연속성의 순서에 따라 배열되어 있다. [9:15]아달월 십사일에 하만의 족속을 진멸한 일을 행하고 [9:16]유대인의 대적을 진멸하고 [9:17]십사일에 승리의 잔치를 베풀고 [9:18]십오일에는 쉬고 ‘이날’에 또 잔치를 베풀다. 이는 [9:15]원수 하만과 그의 족속을 진멸하는 것과 [9:17]구원 승리를 얻은 유대인들이 [9:18]즐거운 잔치를 베풀 사건과 시상의 인접성을 갖고 인과관계를 이룬다.

[9:26]우리가 부리의 이름을 좇아 이 두 날을 부림이라 하고 유대인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당한 것을 인하여.

이어서 [9:18]-[9:25]은 시간적 순서에 따라 배열되어 있다. 유대인의 부림절이 되는 [9:26]이 두 날은 [9:18]아달월 십일과 십오일과 같은 일을 말한다. 따라서 [9:18]과 [9:26]은 시간의 연속성을 갖고 연결되어 있다.

[9:31]정한 기한에 이 부림일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유대인 모르드개와 왕후 에스더의 명한 바와 유대인이 금식하며 부르짖은 것을 인하여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가 있음이라.

[9:31]부림절을 지키기 위해서 유대인이 금식하는 것은 [4:3]유대인들의 고난과 애통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 기원과 에스더가 유대인을 구하기 위해 유대인에게 삼일동안 [4:16]금식한 것을 기념하는 것이다. 따라서 [9:31]과 [4:3]과 [4:16]은 상황의 인접성으로 연결된 것임을 보여준다. 또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찾는 방법인 [4:16] ‘금식기도’, [4:1] ‘행하리라’ [9:31] ‘금식’으로 감사드

리는 것을 나타내며 이로써 시간적 인접성과 인과관계로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이상 [1:1]-[9:31]에서 공간적 배경이 되는 인도로 구스까지 일백이십칠도 도성 수산, 수산궁, 대궐문, 나무라는 장소와 시간적 배경인 되는 오늘 , 그 후에 , 처녀를 다시 모을 때 , 모르드개가 이 둘째 날, 당일, 그때 시완월 곧 시월 이십일이 시간 선상에서 인과관계로 연결된 사건과 상황들이 일정한 순서에 따라 배열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 제 4 장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텍스트 언어학적 연구를 적용하여 구약 『에스더』를 분석하였다. 구약 성경 『에스더』의 응결성과 응집성 분석을 통해 보다 세밀하게 텍스트 생산자의 의도에 대한 설명이 가능할 수 있었다. 더 나아가 『에스더』 외의 다른 성경의 해석도 텍스트 분석 방법을 적용하면 텍스트 정보를 수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는데 연구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텍스트 응결성은 한마디로 텍스트로 실현된 ‘말의 연쇄’를 말한다.

구체적으로 『에스더』에 나타나는 응결성의 장치인 회기, 병행구문, 환언, 대용형, 생략, 접속표현 등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회기 기법을 사용한 이유는 중심 의미를 강조하기 위한 것임을 증명하였다. 이로써 수용자의 인지구조에서 ‘은연중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구원’, ‘용감한 에스더’ 등의 지식을 활성화시켜 주었다. 이런 회기기법의 특징은 구성 명사의 반복되는 빈도를 높인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에스더』의 소설적 구성(발단 → 전개 → 절정 → 대단원)은 서사 구조에 따라 내용이 발전하면서, 반복된 구성명사가 강조하고자 하는 주체임을 설명하고 텍스트 속에서 무형의 연결선처럼 텍스트 전체를 효과적으로 연결하고 있다. 따라서 회기기법의 활용으로 텍스트 속에서는 전후조응 효과도 나타나고, 대비효과도 나타내 준다.

다음으로 동일한 구조 속에 의미가 비슷한 일련의 명사, 동사들을 병행함으로써 표현적 공간을 확대하였다. 또한, 같은 구조 속에 다른 언어 형식을 담아 반복 사용하는 병행구문은 텍스트 생산자가 『에스더』에서 발생한 각 사건이 우연이 아닌 필연적인 것임을 교묘하게 암시한다. 따라서 텍스트 수용자가 『에스더』의 이야기를 통해 본 사건들이 우연히 발생한 일이 아니라 이 역사 사건 가운데 나타나는 은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주제를 증명하였다. 그러나 『에스더』에는 ‘하나님’이란 단어가 명시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텍스트 생산자는 『에스더』의 구조를 통해서 암시적으로 『에스더』의 사건이 ‘하나님의 섭리’임을 밝히고자 노력하였다. 그리고 한 문단에서 큰 병행구조 속에 작은 병행구조가 포함되어 있다. 이런 문단에서 문장들이 서로 교체됨으로써 표의적 공간을 확대하고 표현적 효과를 강화시킨다. 다음으로 환언기법은 텍스트 수용자에게 이해하기 쉬운 단일개념의 의미관계 형성을 통해 강조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한 불확실성을 배제하고 수용자의 인지 환경을 새롭게 하여 의미 상승의 결과를 얻기 게 한다. 이것은 텍스트 전체의 점진감이 더욱 돌출하게 되고 구조를 더욱 안정되게 하였으며, 수용자들의 머릿속에 하나의 직관적인 인상을 제공하였다. 또한 환언기법은

하의관계와 유의관계에 주로 의존하고 있다. 무엇보다 피 섬멸의 대상인 유대인의 대적인 ‘악’에 텍스트 수용자들의 시선을 집중시키기 위해 표층 텍스트에 일시적인 불확실성의 문제를 불러일으키는 대용형을 사용한 것이 가장 두드러진다. 이것은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임을 암시하기 위함이다. 텍스트의 간결성과 경제성을 위해 사용된 생략기법은 통사적으로 알고 있는 정보이므로 생략되어도 텍스트 수용자에게는 정보의 전달이나 획득에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서 복원이 더 용이한 것이다. 그러나 복원이 어렵다면 텍스트는 연관성을 잃게 되어 의미가 연관되는 하나의 텍스트를 이루기 어렵게 된다. 그리고 주어생략은 인식상의 개념이며 언어 의미성분의 부족으로서 구절의 부족은 아니다. 만약 생략한 부분을 보충하여 넣으면 각 구절은 모두 각자 존재할 수 있으나 전반적인 텍스트의 구조는 오히려 분산되고 복잡한 느낌을 주게 된다. 그러므로 『에스터』의 많은 구절에서 주어를 생략하였다. 다음으로 접속 표현은 텍스트 수용자의 궁금증을 유발하고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며 그 방법으로는 주로 후행 발화에 초점을 맞추는 효과를 통해 증명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대등접속은 선행문과 후행문의 의미적 종속에 따라 병렬관계 접속을 따르고 있다. 한편 종속관계 접속은 ‘인과관계, 조건관계, 양보관계, 순차관계, 설명관계’ 등의 표현 효과를 얻기 위해 적절하게 쓰이고 있다.

다음으로 응집성은 텍스트 언어학이 추구하는 중요한 목표 중의 하나인 텍스트의 유형화에 그 사용목적이 있다. 지금까지 『에스터』의 거시구조와 미시구조를 분석하였다. 이는 구절 및 단락 간의 의미관계를 구절과 개념들의 관계구조를 나타내어 거시구조를 먼저 분석하고 이어서 미시구조를 분석함으로써 전국적 맥락에서의 응집성을 증명하였다. 일단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사건과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고 변화되는가 하는 모습을 개념화하여 개념들의 관계그물, 곧 응집성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들은 제어중심이 되는 개념과 2차, 3차 개념들의 연결 관계를 잘 나타내 주며 특히 소설 텍스트 전체의 맥락을 파악하는데 매우 효과적이었다. (A)에서 (F)까지의 거시개념들의 관계망인 거시구조 1과 거시구조 2, 3을 단계에 따라 하위로 내려가면서 분석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거시구조 1과 거시구조 2, 거시구조 3을 합하면 응집성 전체의 모습을 잘 파악 할 수 있다. 또한 거시구조는 미시구조에 어떤 행위나 정신적 활동을 적용시켜 이해하는 동안에 형성되는데, 거시구조의 일반화 규칙 중, 주로 명제의 연쇄작용에 의지하고 있다. 그리고 미시구조는 거시구조의 행위주체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여러 미시구조들이 단단한 응집성을 이루면서 최종적으로 거시 구조를 형성하고 있음을 확인시켜 준다. 이처럼 전국적 맥락에서의 응집성으로 부터 볼 때 전국적 패턴의 스키마에 의하여 텍스트 생산자는 텍스트 구조 속에 시간적 인접성과 인과관계로 연결된 사건과 상황들이 일정한 순서로 배열되고 있으므로 『에스터』에서 인지적 요소들

이 각기 응집성을 가지고 수용자의 인지적 패턴을 활성화시키는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을 증명하였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구약성경 『에스더』의 텍스트 응결성과 응집성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구약 『에스더』 텍스트의 구조특성, 연결방법 및 문맥구조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구절연결의 법칙과 텍스트생산자가 이 법칙을 통하여 표현하려는 심층 함의를 찾아내는데 집중하였다. 본고는 구약 성경의 『에스더』를 텍스트 언어학적 방법 연구를 통하여 앞으로 『에스더』에 나타난 텍스트의 응결성과 응집성과 같은 성경의 여러 유형의 텍스트 연구 가능성과 텍스트 연구 범위의 확대를 기대한다.



## <참 고 문 헌>

### I. 단행본

- 강회숙(2003), 『국어 정서법의 이해』, 역락.
- 고영근(1995), 『단어·문장·텍스트』, 한국문학사.
- 고영근(1998), 『중세국어의 시상과 서법(보정판)』, 탑출판사.
- 고영근(1999), 『텍스트 이론』, 아르케.
- 고영근 외(2001), 『한국텍스트과학의 제과제』, 역락.
- 고영근(2004), 『한국어 문법론』, 태학사.
- 김용도(1996), 『텍스트 결속이론』, 부산외대 출판부.
- 김태옥(1990), 이현호 공역, 『텍스트 언어학 입문』, 한신문화사.
- 김태옥(1992), 『인지적 화용론』, 한신문사.
- 남기심·고영근(1998), 『표준 국어 문법론』, 탑출판사.
- 도수희(1987), 『국어 대용어의 연구』, 국어학연구신서10, 탑출판사.
- 박영순(2004), 『한국어 담화 텍스트론』, 한국문화사.
- 심재기(1995), 『국어 어휘론 신강』, 태학사.
- 양명희(1995), 『현대국어 대용어에 대한 연구』, 태학사.
- 이기동 외 역(1999), 『동사구문 그리고 의미』, 형성 출판사.
- 이경숙(1994), 『구약성서의 여인들』, 대한기독교서회.
- 이석규 외(2001), 『텍스트 언어학의 이론과 실제』, 박이정.
- 이석규(2003), 『텍스트 분석의 실제』, 역락.
- 이주행(2000), 『한국어문법의 이해』, 月印.
- 이양구 역(1993), 『舊約時代의 宗教風俗』, 성서연구사.
- 이현호 외(1997), 『한국 현대시의 담화·화용론적 연구』, 한국문화사.
- 조숙환(1992), 『언어학과 인지』, 한국문화사.
- 최재희(1991), 『국어의 접속문 구성 연구』, 탑출판사.
- 최재희 외(1999), 『국어학의 이해』, 태학사.
- 최재희(2004), 『한국어 문법론』, 태학사.
- 국립국어원(1999), 『표준국어 대사전』, 두산동아.
- 대한성서공회(1987), 『개역성경』, 성서원.
- 성서교재간행(1996), 『그랜드 종합주석』, 제11권, 제자원.

## II. 논총

- 강범모(1998), 「통계적 방법에 의한 한국어 텍스트 유형 및 문제 분석」, 『언어학』, 22, 한국언어학회.
- 고영근(1997), 「텍스트 이론과 문학작품의 분석」, 『텍스트 언어학』, 4, 텍스트언어학연구회.
- 고영근(1990), 「좋은 텍스트를 만드는 길」, 『새 국어 생활』, 8-4(겨울), 국립국어연구원.
- 구현철(1996), 「담화구조적 생략현상」, 『인문논총』, 49, 서울여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 김광희(2000), 「국어 화맥 조응 대명사의 장거리 결속에 대하여」, 『한국언어문학』, 45, 한국언어문학회.
- 김순자(1999), 「대화의 맞장구 수행 형식과 가능」, 『텍스트 언어학』, 6, 텍스트언어학연구회.
- 김정선(1997), 「텔레비전 광고 텍스트의 구조와 대화」, 『한양어문』, 15, 한국언어문화학회.
- 김정선(1999), 「상거래 대화에서의 공순 책략」, 『텍스트 언어학』, 7, 텍스트언어학연구회.
- 김일용(1984), 「명사의 생략 현상 연구」, 『언어연구』, 7, 서울대학교 언어연구소.
- 김재봉(1995), 「문 주제 중심의 텍스트 요약과 거시규칙」, 『텍스트 언어학』, 3, 텍스트언어학연구회.
- 김재용(1994), 「언표내적 행위의 계층성」, 『텍스트 언어학』, 2, 텍스트언어학연구회.
- 김태욱(1996), 「텍스트 언어학과 현대문학」, 『새국어생활』, 6-1, 국립국어연구원.
- 김태자(1999), 「담화분석에 의한 수용자 측면에서의 시조 분석」, 『한국언어문학』, 42, 한국언어문학회.
- 김혜숙(1997), 「신문 광고 문안의 결속구조 고찰」, 『동국어문학』, 9, 동국어문학회.
- 나병모(1990), 「대용어의 이동분석」, 『언어』, 1, 한국언어학회.
- 동성식(1995), 「‘좁은문’과 성경의 간텍스트성 연구」, 『통합연구학회』, 8, 통합연구학회.
- 박금자(1999), 「일간신문 제목에 나타나는 응집성·패러디 연구」, 『텍스트 언어

- 학』, 7, 사회문화연구소.
- 박노철(2004), 「성경 번역의 역사와 우리말 성경 번역비교」, 『기독교와 어문학』, 1, 한국기독교어문학회.
- 박여성(1995), 「간텍스트성 문제」, 『텍스트 언어학』, 3, 텍스트언어학연구회.
- 박용익(1997), 「텔레비전 정치토론의 대화분석」, 『텍스트 언어학』, 4, 텍스트언어학연구회.
- 박현선(1995), 「텍스트의 양태성 연구」, 『텍스트 언어학』, 3, 텍스트언어학연구회.
- 송경숙(2002), 「전자담화에서 전제 분석」, 『텍스트 언어학』, 12, 텍스트언어학연구회.
- 신선경(1999), 「TV 광고의 텍스트 언어학적 특징」, 『텍스트 언어학』, 7, 텍스트언어학연구회.
- 양권석(1998), 「한국적 성서 읽기의 한 방법으로서 상호 텍스트적 성서해석이 가능성」, 『시대와 민중신학』, 5, 제3시대그리스도교연구소.
- 오장근(2001), 「텍스트 유형 편지로서 ‘빌레문서’의 텍스트 화행론적 분석」, 『텍스트 언어학』, 11, 텍스트언어학연구회.
- 이미경(2009), 「이분법 스키마타를 치유하는 성서읽기 연구」, 『기독교교육논총』, 21, 한국기독교교육학회.
- 이석규(1997), 「텍스트 정보성에 관한 연구」, 『경원어문논집』, 1, 경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 이성연(2002), 「구약 요나의 결속구조 연구」, 『한국언어문학』, 48, 한국언어문학회.
- 이성연·안정순(2001), 「구약 ‘아가’의 환연과 대용어 연구」, 『새 국어 교육』, 67, 한국국어교육학회.
- 이성연·안정순(2001), 「구약 ‘아가’의 화기와 병행구문 연구」, 『한국민족어문학』, 44,釜山大學校 韓國民族文化研究所.
- 이진아(2002), 「'잃어버린 낙원'과 성서의 상호텍스트성」, 『인문학연구』, 6, 한림대학교 인문학연구소.
- 이재원(2001), 「응집성, 응집성들」, 『텍스트 언어학』, 10, 텍스트언어학연구회.
- 정민(2000), 「온달전의 텍스트 분석」, 『텍스트 언어학』, 9, 텍스트언어학연구회.

- 정영벽(2001), 「성경 텍스트의 상황성 연구」, 경원어문논집』, 45, 경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 정창대(2007), 「구약해석 방법론」, 『신학지평』, 20, 안양대학교 신학연구소.
- 정진원(1993), 「설화자 화법으로 살핀 텍스트 분석」, 『텍스트 언어학』, 1, 텍스트언어학연구회.
- 최재희(1997), 「국어 종속 접속문의 통사적 지위」, 『한글』, 238, 한글학회.
- 최형용(2000), 「광고 전략과 언어적 이중성」 『텍스트 언어학』, 9, 텍스트언어학연구회.

### III. 석박학위논문

- 박정준(1994), 「담화의 텍스트 언어학적 분석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송태윤(2005), 「고려가요의 텍스성 분석」, 조선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신현정(1997), 「대용어 결속구조의 기능 연구」, 충남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신혜경(2006), 「구약 성서 ‘룻기’의 텍스트 언어학 연구」, 전남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안정순(2004), 「구약 아가의 응결성 연구」, 조선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유동영(1997), 「대화 참여자의 대화전략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이지혜(2009), 「멜비소설과 성경의 상호텍스트성」, 경북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이은희(1993), 「접속관계의 텍스트 언어학적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장영표(1998), 「현대시의 텍스트 언어학적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장병도(1998), 「텍스트 결속성 수단으로서 포커스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정영벽(1999), 「신약성경 빌립보서의 텍스트 언어학적 연구」, 목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정성길(2000), 「예리미야 30-33장에 나타난 결속구조 분석」, 송실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황미향(1998), 「한국 텍스트의 계층구조와 결속 표지의 기능 연구」, 경북대학

#### IV. 역서 및 국외 논저

Beaugrand, R., de & Dressler .W. 김태옥· 이현호 역(1990), 『담화·텍스트 언어학입문』, 양영각.

Brinker. K. 이성만 역(1994), 『텍스트 언어학의 이해』, 한국문화사.

Coseriu. E. 신익성 역(1995), 『텍스트 언어학』, 사회문화연구소.

Van Dijk, T.A(1972), *Some Aspect of Text Grammar, A study in Theoretical linguistics and Poetics*, Mouyon.

Linda Day(1995), *Three faces of a Queen*, Sheffield Academic Press.

Luter & Davies(1995), *God Behind the seen*, Baker Book.

Mervin Breneman(1993), *The New American Commentary*, Broadman & Holman Press.

Ramm. B. 권혁봉 역(1994), 『성경해석학』, 생명의 말씀사.

## 부 록

### 『에스더』 전문

#### (A). 왕이 잔치를 베풀(1:1-1:8)

[T1-1]이 일은 아하수어로 왕 때에 된 것이니 아하수어로는 인도로 구스까지 일백 이십칠 도를 치리하는 왕이라(1:1) 당시에 아하수어로 왕이 수산 궁에서 즉위하고 (1:2).

[T1-2]위에 있는 지 삼 년에 그 모든 방백과 신복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도의 귀족과 방백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1:3) 왕이 여러 날 곧 일백팔십일 동안에 그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赫赫함을 나타내니라 (1:4) 이 날이 다하매 왕이 또 도성 수산 대소 인민을 위하여 왕궁 후원 뜰에서 칠 일 동안 잔치를 베풀새(1:5)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 가는 베줄로 대리 석 기둥 은고리에 매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1:6)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식양이 각기 다르고 왕의 풍부한 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1:7) 마시는 것도 규모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궁내 관리에게 명하여 각 사람으로 마음대로 하게 함이 더라(1:8).

#### (B). 와스디의 폐위(1:9-1:22)

[T2-1]왕후 와스디도 아하수어로 왕궁에서 부녀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1:9) 제 칠일에 왕이 주흥이 일어나서 어전 내시 므후만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 일곱 사람을 명하여(1:10)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면류관을 정제 하고 왕의 앞으로 나아오게 하여 그 아리따움을 못 백성과 방백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1:11) 그러나 왕후 와스디가 내시의 전하는 왕명을 좇아 오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중심이 불붙는 듯하더라(1:12).

[T2-2]왕이 사례를 아는 박사들에게 묻되 (왕이 규례와 법률을 아는 자게 묻는 전례가 있는데(1:13) 때에 왕에게 가까이 하여 왕의 기색을 살피며 나라 첫 자리에 앉은 자는 바사와 메대의 일곱 방백 곧 가르스나와 세달과 아드마다와 다시스와 메레스와 마르스나와 므무간이라(1:14) 왕후 와스디가 내시의 전하는 아하수어로 왕명을 좇지 아니하니 규례대로 하면 어떻게 처치할꼬(1:15) 므무간이 왕과 방백

앞에서 대답하여 가로되 왕후 와스디가 왕에게만 잘못할 뿐 아니라 아하수에로 왕의 각 도 방백과 못 백성에게도 잘못하였나이다(1:16) 아하수에로 왕이 명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하였다 하는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부녀에게 전파되면 저희도 그 남편을 멸시할 것인 즉(1:17) 오늘이라도 바사와 메대의 귀부인들이 왕후의 행위를 듣고 왕의 모든 방백에게 그렇게 말하리니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나리이다(1:18) 왕이 만일 선히 여기실진대 와스디로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 중에 기록하여 번역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위를 저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1:19) 왕의 조서가 이 광대한 전국에 반포되면 귀천을 무론하고 모든 부녀가 그 남편을 존경하리이다(1:20) 왕과 방백들이 그 말을 선히 여긴지라 왕이 무무간의 말대로 행하여(1:21) 각 도 각 백성의 문자와 방언대로 모든 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남편으로 그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방언대로 말하게 하라 하였더라(1:22).

(C). 에스더의 등극(2:1-2:20)

**[T3-1]**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치매 와스디와 그의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2:1) 왕의 시신이 아리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2:2) 전국 각 도에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헤개의 손에 붙여 그 몸을 정결케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2:3)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로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후를 삼으소서 왕이 그 말을 선히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2:4).

**[T3-2]** 도성 수산에 한 유대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개라 저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2:5)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개도 함께 사로잡혔더라(2:6) 저의 삼촌의 딸 하닷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고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개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2:7).

**[T3-3]** 왕의 조명이 반포되매 처녀들이 도성 수산에 많이 모여 헤개의 수하에 나아갈 때에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 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헤개의 수하에 속하니(2:8) 헤개가 이 처녀를 기뻐하여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케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에서 의례히 주는 일곱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2:9)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고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개가 명하여 고하지 말라하였음이라(2:10) 모르드개가 날마다 후궁 뜰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 것을 알고자하더라(2:11)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열 두

달 동안을 행하되 여섯 달은 몰약 기름을 쓰고 여섯 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케 하는 기한을 마치며(2:12)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에는 그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하고(2:13)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는 둘째 후궁으로 돌아와서 비빈을 주관하는 내시 사 아스가스의 수하에 속하고 왕이 저를 기뻐하여 그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더라(2:14) 모르드개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개가 자기의 딸 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헤개의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꿈을 얻더라(2:15) 아하수어로 왕의 칠년 시월 곧 데벳월에 에스더가 이끌려 왕궁에 들어가서 왕의 앞에 나아 가니(2:16)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욱 사랑하므로 저가 모든 처녀보다 왕의 앞에 더욱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 머리에 면류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후를 삼은 후에(2:17)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방백과 신복을 향응하고 또 각 도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풍부함을 따라 크게 상주니라(2:18).

(D). 하만의 음모(2:19-4:17)

**[T4-1]**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에는 모르드개가 대궐 문에 앉았더라(2:19) 에스더가 모르드개의 명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고하지 아니하니 저가 모르드개의 명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좃음이더라(2:20) 모르드개가 대궐 문에 앉았을 때에 문 지키 왕의 내시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아하수어로 왕을 원한하여 모살하려 하거늘(2:21) 모르드개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고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개의 이름으로 왕에게 고한지라(2:22) 사실하여 실정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의 앞에서 궁중 일기에 기록하니라(2:23).

**[T4-2]** 그 후에 아하수어로 왕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모든 함께 있는 대신 위에 두니(3:1) 대궐 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복이 다 왕의 명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개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3:2) 대궐 문에 있는 왕의 신복이 모르드개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3:3)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개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대 인임을 고하였더니 저희가 모르드개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고하였더라(3:4) 하만이 모르드개가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심히 노하더니(3:5) 저희가 모르드개의 민족을 하만에게 고한 고로 하만이 모르드개만 죽이는 것이 경하다 하고 아하수어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대인 곧 모르드개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3:6).



**[T4-3]**아하수어로 왕 십이년 정월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십이월 곧 아달월을 얻은지라(3:7) 하만이 아하수어로 왕에게 아뢰되 한민족이 왕의 나라 각 도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보다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3:8)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저희를 진멸하소서 내가 은 일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부쳐 왕의 부고에 드리리이다(3:9)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3:10) 이르되 그 은을 네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는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하더라(3:11) 정월 십삼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 도 방백과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하수어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곧 각 도의 문자와 각 민족의 방언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치니라(3:12) 이 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부쳐 왕의 각 도에 보내니 십이월 곧 아달월 십삼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노소나 어린아이나 부녀를 무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3:13) 이 명령을 각 도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 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3:14) 역졸이 왕의 명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3:15).

**[T4-4]**모르드개가 이 모든 일을 알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베를 입으며 재를 무릅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 통곡하며(4:1) 대궐 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를 입은 자는 대궐 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4:2) 왕의 조명이 각 도에 이르매 유대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곡읍하며 부르짖고 굵은 베를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 하더라(4:3).

**[T4-5]**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아와 고하니 왕후가 심히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개에게 보내어 그 굵은 베를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개가 받지 아니하는지라(4:4) 에스더가 왕의 명으로 자기에게 근시하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하여 모르드개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슨 연고인가 알아보라 하매(4:5) 하닥이 대궐 문 앞 성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개에게 이르니(4:6) 모르드개가 자기의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부고에 바치기로 한은의 정확한 수효를 하닥에게 말하고(4:7)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산 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뵈어 알게 하고 또 저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의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4:8)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개의 말을 에스더에게 고하매(4:9)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개에게 고하기를(4:10) 왕의 신복과 왕의 각 도 백성이 다 알거니와 무론 남녀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흠을 내어 밀어야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지가 이미 삼십 일이라 하라(4:11) 그가 에스더의 말로 모르드개에게 고하매(4:12) 모르드개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대인 중에 홀로 면하리라 생각지 말라(4:13) 이 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대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놓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4:14) 에스더가 명하여 모르드개에게 회답하되(4:15)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대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삼 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4:16) 모르드개가 가서 에스더의 명한 대로 다 행하니라(4:17).

(E). 하만의 굴욕(5:1-8:2)

**[T5-1]** 제 삼 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 문을 대하여 보좌에 앉았다가(5:1)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심히 사랑스러우므로 손에 잡았던 금흠을 그에게 내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흠 끝을 만진지라(5:2)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5:3) 에스더가 가로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사오니 왕이 선히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임하소서(5:4) 왕이 가로되 에스더의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의 베풀 잔치에 나아가니라(5:5) 잔치의 술을 마실 때에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5:6) 에스더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니이다(5:7)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선히 여기시거든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나아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5:8).

**[T5-2]** 이 날에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모르드개가 대궐 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심히 노하나(5:9) 참고 집에 돌아와서 사람을 보내어 그 친구들과 그 아내 세레스를 청하여(5:10) 자기의 부성한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방백이나 신복들 보다 높은 것을 다 말하고(5:11) 또 가로되 왕후 에스더가 그 베풀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고 내일도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느니라(5:12) 그러나 유대 사람 모르드개가 대궐 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다(5:13)그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가 이르되 오십 규빗이나 높은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개를 그 나무에 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나아가소서 하만이 그 말을 선히 여기고 명하여 나무를 세우니라(5:14).

**[T5-3]**이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6:1)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 지킨 왕의 두 내시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모살하려 하는 것을 모르드개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6:2) 왕이 가로되 이 일을 인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개에게 베풀었느냐 시신이 대답 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6:3).

**[T5-4]**왕이 가로되 누가 뜰에 있느냐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개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뜰에 이른지라(6:4) 시신이 고하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왕이 가로되 들어오게 하라 하니(6:5)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케 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케 하기를 기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하고(6:6)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케 하시려면(6:7) 왕의 입으시는 왕복과 왕의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취하고(6:8) 그 왕복과 말을 왕의 방백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붙여서 왕이 존귀케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사람에게 웃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케 하기를 기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6:9).

**[T5-5]**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네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취하여 대궐 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개에게 행하되 무릇 네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6:10) 하만이 왕복과 말을 취하여 모르드개에게 웃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케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니라(6:11) 모르드개는 다시 대궐 문으로 돌아오고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와서(6:12) 자기의 당한 모든 일을 그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고하매 그 중 지혜로운 자와 그 아내 세레스가 가로되 모르드개가 과연 유다 족속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저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리이다(6:13)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의 베풀 잔치에 빨리 나아가니라(6:14).

**[T5-6]**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나아가니라(7:1)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가로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 지라도 시행하겠노라(7:2)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선히 여기시거든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7:3)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다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7:4) 아하수어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일러 가로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7:5) 에스더가 가로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7:6)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 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화를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앎이더라(7:7).

**[T5-7]**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 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의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가로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우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7:8)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개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고가 오십 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가로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7:9) 모르드개를 달고자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7:10).

**[T5-8]** 당일에 아하수어로 왕이 유대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개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고한 고로 모르드개가 왕의 앞에 나아오니(8:1) 왕이 하만에게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개에게 준지라 에스더가 모르드개로 하만의 집을 주관하게 하니라(8:2).

(F).유대인의 승리(8:3-10:3)

**[T6-1]** 에스더가 다시 왕의 앞에서 말씀하며 왕의 발 아래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대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하기를 울며 구하니(8:3) 왕이 에스더를 향하여 금홀을 내어미는지라 에스더가 일어나 왕의 앞에 서서(8:4) 가로되 왕이 만일 즐겨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선히 여기시며 나를 기쁘게 보실진대 조서를 내리사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도에 있는 유대인을 멸하려고 꾀하고 쓴 조서를 취소하소서(8:5) 내가 어찌 내 민족의 화당함을 참아 보며 내 친척의 멸망함을 참아 보리이까(8:6) 아하수어로 왕이 왕후 에스더와 유대인 모르드개에게 이르되 하만이 유대인을 살해하려 하므로 나무에 달렸고 내가 그 집으로 에스더에게 주었으니(8:7)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대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취소할 수 없음이니라(8:8) 그때 시완월 곧 삼월 이십삼

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고 무릇 모르드개의 시키는 대로조서를 써서 인도로부터 구스까지의 일백이십칠 도 유다인과 대신과 방백과 관원에게 전할새 각 도의 문자와 각 민족의 방언과 유다인의 문자와 방언대로 쓰되(8:9) 아하수어로 왕의 명의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치고 그 조서를 역졸들에게 부쳐 전하게 하니 저희는 왕궁에서 길러서 왕의 일에 쓰는 준마를 타는 자들이라(8:10)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저희로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도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저희를 치려 하는 자와 그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8:11) 아하수어로 왕의 각 도에서 아달월 곧 십이월 십삼일 하루 동안에 하게 하였고(8:12) 이 조서 초본을 각 도에 전하고 각 민족에게 반포하고 유다인으로 예비하였다가 그 날에 대적에게 원수를 갚게 한 지라(8:13)왕의 명이 심히 급하매 역졸이 왕의 일에 쓰는 준마를 타고 빨리 나가고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라(8:14).

**[T6-2]**모르드개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면류관을 쓰고 자색 가는 베 겹옷을 입고 왕의 앞에서 나오니 수산 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8:15)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8:16)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 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의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가로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8:17).

**[T6-3]**아달월 곧 십이월 십삼일은 왕의 조명을 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이 저희를 제어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를 미워하는 자를 제어하게 된 그 날에(9:1) 유다인들이 아하수어로 왕의 각 도, 각 읍에 모여 자기를 해하고자 하는 자를 죽이려 하니 모든 민족이 저희를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고(9:2) 각 도 모든 관원과 대신과 방백과 왕의 사무를 보는 자들이 모르드개를 두려워하므로 다 유다인을 도우니(9:3) 모르드개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하매 이 사람 모르드개의 명성이 각 도에 퍼지더라(9:4) 유다인이 칼로 그 모든 대적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마음대로 행하고(9:5) 유다인이 또 도성 수산에서 오백 인을 죽이고 멸하고(9:6) 또 바산다다와 달본과 아스바다와(9:7) 보라다와 아달리야와 아리다다와(9:8) 바마스다와 아리새와 아리대와 왜사다(9:9) 곧 함므다다의 손자요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열 아들을 죽였으나 그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9:10) 그 날에 도성 수산에서 도륙한 자의 수효를 왕께 고하니(9:11)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이르되 유다인이 도성 수산에서 이미 오백 인을 죽이고 멸하고 또 하만의 열 아들을 죽였으니 왕의 다른 도에서는 어떠하였겠느냐 이제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또한 시행하겠노라(9:12) 에스더가 가로되 왕이 만일 선히 여기 시거든 수산에 거

하는 유대인으로 내일도 오늘날 조서대로 행하게 하시고 하만의 열 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달게 하소서(9:13) 왕이 그대로 행하기를 허락하고 조서를 수산에 내리니 하만의 열 아들의 시체가 달리니라(9:14) 아달월 십사일에도 수산에 있는 유대인이 모여 또 삼백 인을 수산에서 도륙하되 그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9:15) 왕의 각 도에 있는 다른 유대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대적들에게서 벗어나며 자기를 미워하는 자 칠만 오천 인을 도륙하되 그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9:16).

**[T6-4]** 아달월 십삼일에 그 일을 행하였고 십사일에 쉬며 그 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겼고(9:17) 수산에 거한 유대인은 십삼일과 십사일에 모였고 십오일에 쉬며 이 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긴지라(9:18) 그러므로 촌촌의 유대인 곧 성이 없는 고을 고을에 거하는 자들 이 아달월 십사일로 경절을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더라(9:19) 모르드개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하수에로 왕의 각 도에 있는 모든 유대인에게 무론 원근하고 글을 보내어 이르기(9:20)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십사일과 십오일을 지키라(9:21) 이 달 이 날에 유대인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9:22) 유대인이 자기들의 이미 시작한 대로 또는 모르드개의 보낸 글대로 계속하여 행하였으니(9:23) 곧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모든 유대인의 대적 하만이 유대인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부르 곧 제비를 뽑아 저희를 죽이고 멸하려 하였으나(9:24) 에스더가 왕의 앞에 나아감을 인하여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대인을 해하려던 악한 꾀를 그 머리에 돌려 보내어 하만과 그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9:25) 우리가 부르의 이름을 좇아 이 두 날을 부림 이라 하고 유대인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당한 것을 인하여(9:26) 뜻을 정하고 자기와 자손과 자기와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한 정기에 이 두 날 연하여 지켜 폐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9:27) 각 도, 각 읍,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부림일을 유대인 중에서 폐하지 않게 하고 그 자손 중에서도 기념함 이 폐하지 않게 하였더라(9:28) 아비하일의 딸 왕후 에스더와 유대인 모르드개가 전권으로 글을 쓰고 부림에 대한 이 둘째 편지를 굳이 지키게 하되(9:29) 화평하고 진실한 말로 편지를 써서 아하수에로의 나라 일백이십칠 도에 있는 유대 모든 사람에게 보내어(9:30) 정한 기한에 이 부림일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유대인 모르드개와 왕후 에스더의 명한 바와 유대인이 금식하며 부르짖은 것을 인하여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가 있음이더라(9:31) 에스더의 명령이 이 부림에 대한 일을 견고히 하였고 그 일이 책에 기록되었더라(9:32).

**[T6-5]** 아하수에로 왕이 그 본토와 바다 섬들로 공을 바치게 하였더라(10:1) 왕의

능력의 모든 행적과 모르드개를 높여 존귀케 한 사적이 메대와 바사 열왕의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10:2) 유대인 모르드개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대인 중에 존대하여 그 허다한 형제에게 꿈을 받고 그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10:3).